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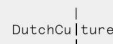
2021
ARKO
International
Online Symposium
Report

RE:
CONNECTION

2021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다시, 연결하기
결과자료집

March 23-24, 2021
3-6 p.m.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stageone

Day 1 2021.03.23.(TUE.)

팬데믹 시대의 예술

<2021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첫째 날에는 「팬데믹 시대의 예술」이라는 주제 아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예술가와 예술은 어떻게 대 처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사례와 관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인이자 사회학자인 심보선 교수는 기존연설에서 예술적 프로젝트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난제, 한계, 가능성, 전망에 대한 토론과 공유가 긴급 하다고 강조했다.

코펜하겐 건축 페스티벌 조세핀 미사우 감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국적 봉쇄조치 이후 2020년 코펜하겐 건축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 최한 사례를 전했다으며, 독일의 조각가 게레온 크레버는 독일 보트루프 코로나 백신 센터 내에서 개최된 조각전 사례를 소개하며 의학적인 치료 효과는 없었지만, 우리가 당면한 암울한 현실에서 잠시 눈을 돌리게 할 수는 있었다고 말했다. 영국예술위원회의 존 맥마흔은 팬데믹 상황에서 영국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기관들을 어떻게 지원하였으며, 문화예술산업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네덜란드 문화 & 디지털화 연구소 마이커 페르베르크 소장이 네덜란드 문화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사치인 플드럼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진희 위원(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였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국의 지원,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Day 2 2021.03.24.(WED.)

팬데믹 시대의 관계, 연결, 교육

<2021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둘째 날에는 「팬데믹 시대의 관계, 연결, 그리고 교육」라는 주제로, 팬데믹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국가 간 교류 단절과 경쟁, 각지도성의 역사개화가 심화된 시기에, 팬데믹이 문화예술 '국제 교류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싱가포르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웅 쟁 섀 감독은 기존강연을 통해 팬데믹이 낳은 디지털 식민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맨체스터 박물관의 에스메 오드 관장은 코로나 시대에 예술활동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관계 맺기의 양상을 소개했으며, 우리를 둘러싼 세계 를 연결하는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국 출신 페스티벌의 김성희 감독은 코로나 팬데믹은 민족주 의, 자국중심주의, 인종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예술은 이러한 분리에서 저항해 초국가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덜란 드 현대문화기관 마레스의 발렌타인 바이번크 관장은 코로나로 인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충분하며, 앞으로 경험의 세계로 돌아가려고 노력해 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그 동안의 국제예술교류 활동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단절되었던 것들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과 관점으로 점 근할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2021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주 제	다시, 연결하기 (Re: Connection)
일 시	2021. 3.23(화)~3.24(수) 15:00~18:00
장 소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3 스튜디오
방 식	유튜브(YouTube) 생중계
주 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 원	영국예술위원회, 주한영국문화원, 주한독일문화원, 데마크문화청, 주한덴마크대사관, 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 더치컬처 국제문화협력센터,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 관	스테이지원

Day 1 2021.03.23.(TUE.)

팬데믹 시대의 예술

Day 2 2021.03.24.(WED.)

팬데믹 시대의 관계, 연결, 교류

모더레이터 : 서지혜 인문학진흥사업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개회사		한국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5:00	환영사	독일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주한독일문화원장	
		주제		발표자
15:10	기조강연	한국	프로젝트와 플랫폼 너머	심보선 사동학자, 시인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15:30	발표 1	덴마크	팬데믹 시대에도 축제는 계속 된다 *2020 코펜하겐 건축 페스티벌(CAFS) 온라인 개최 사례 소개 : 팬데믹을 바라보는 건축의 관점	조세핀 미사우 코펜하겐 건축 페스티벌(CAFS) 감독
	발표 2	독일	예술가가 처방한 코로나 백신 독일 보트로프 코로나 백신 센터 내 조각전 "Arts to lighten COVID-19 Vaccination" 사례 소개	게레온 크레버 조각가, 뒤셀도르프 미술스튜디오가게미 교수
	발표 3	영국	영국예술위원회의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Let's Create"	존 맥미혼 영국예술위원회 정책 연구 담당
16:45	토론	한국	이진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장애여성공감 대표	
		네덜란드	마이어 페르베르크 네덜란드 문화 & 디지털화 연구소 소장	

모더레이터 : 지혜원 공연평론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객원교수				
15:00	환영사	영국	대런 헨리 영국예술위원회 위원장	발표자
		덴마크	아이너 앤센 주한덴마크 대사	
		싱가포르	폴 란 국립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부위원장	
		네덜란드	케이스 더 홀리프 네덜란드 디지털처 대표	
주제				
15:10	기조강연	싱가포르	팬데믹을 넘어 세계, 로컬, 시민회의 새로운 정의에 논다	웅경선 연출가, 씨아터웍스 예술감독
	발표 1	영국	관계맺기의 새로운 양상 : 예술과 정신건강	에스메 와드 맨체스터 박물관 과장, 문화건강발전위원회 이사
	발표 2	한국	예술 생태계와 국제교류	김성희 웅신 페스티벌 감독
15:30	발표 3	네덜란드	예술과 국제교류의 전망과 대응	발렌타인 바이빈크 현대문화기관 마레스(Mares) 관장
16:45	토론	한국	박지선 프로듀서그룹 도트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싱가포르	쿠오 지안 홍 씨아터 프래티스 예술감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입니다.

<2021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 예술의 국제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영국예술위원회의 공동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독일, 덴마크와 다년간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싱가포르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네덜란드와 다년간, 상생형 협력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해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교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지리인 <ARKO 국제 심포지엄>은 2년에 한 번 개최되어 왔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 행사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포지엄에 인사를 보내주시는 대런 헨리 영국예술위원회 위원장님,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주한독일문화원장님, 아이너 앤제 주한 덴마크 대사님, 폴 탄 국립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부위원장님, 케이스 더 흐라프 네덜란드 국제문화협력센터 대표님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행사라는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참여해주신 국내외 인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야기한 전대미문의 팬데믹 현상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출입국 제한, 락다운 등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에게 제안된 방법들은 하나같이 '단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술계, 특히 국제교류 활동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번 <2021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팬데믹이 우리의 예술, 사회, 개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단절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연결하기 (ReConnection)' 위해 어떤 발상의 전환과 성찰이 필요한지 돌아볼 예정입니다.

1일차에는 '팬데믹 시대의 예술의 주제'를 갖고, 팬데믹이 가져온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이에 대해 예술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디지털 기술활용', '정신건강', '팬데믹을 소재로 한 예술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여러 관점을 공유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2일차에는 '팬데믹 시대의 관계, 연결, 그리고 교류'라는 주제로, 팬데믹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국가 간 교류 단절과 경쟁, 각자도생의 여세경쟁이 심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팬데믹이 문화예술 '국제 교류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우리가 진행해왔던 국제 예술교류 활동들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단절되었던 것들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과 관정으로 접근해야할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변화하는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다시 연결되고,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아준 영국예술위원회, 주한영국문화원, 주한독일문화원, 덴마크 공정청, 주한덴마크대사관, 국립싱가포르예술위원회, 다치 겐치 네덜란드 국제문화협력센터 및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독일문화원장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안녕하십니까?

주한 독일문화원을 대표해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 문화 기관들이 코로나 위기가 예술가와 예술 창작, 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실존적 질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구가 가능할지 의구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노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향후 무엇이 정상적인 상태인乎 식될 것인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새로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새로운 예술 형식과 혁신적인 문화예술교류 형태, 소비자들의 가장 관심과 가장 교육의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필요에 의해 생겨난 미분책이 아닌 지속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경향이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다양한 세션에서 다루는 키워드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제 전문가들이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주한 독일문화원도 이러한 질문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은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레모네이드 만들기: 예술의 디지털 미래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킥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 킥퍼런스에서 각 산업의 선진 사례들을 살펴보고 예술의 버림직한 디지털 미래의 모습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패널 토의와 온라인 공연, 쇼케이스도 진행됩니다. 금번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의 결과를 잘 숙지하여 킥퍼런스의 토대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위기 속에서 예술가들이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NGO인 Freemuse는 2021년 2월 발표한 예술적 자유 현황 보고서에서 2020년 89개국과 온라인 공간에서 자행된 978건의 예술적 자유 침해 행위를 분석했습니다. 17명의 예술가가 목숨을 잃었으며, 82명이 수감되고, 133명이 구금됐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문화 행사 제한 조치가 시행됐지만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화됐습니다. 코로나 19 조치가 예술가와 작품의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한 구실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의 주제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이 사안을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19와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모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위험도 간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부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를 무기 장이 반체제 예술가들의 의견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뉴노멀"의 요소로 자리잡아서는 안됩니다.

심포지엄에서 수많은 강동과 팬데믹이 예술과 문화교류, 예술 창작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예술위원회 위원장

대런 헐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1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코로나 19로 물리적으론 고립된 지 벌써 한 해가 됐지만 우리가 조직과 국경을 넘어 가상 공간에서 협력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세계는 오히려 더 작아졌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의 결과로 국제협력에 디지탈 성숙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시금 물리적 경함을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창의성을 강요하고 가상 공간에서 의견을 나누게 된 것도 환영할 일임에 분명합니다.

본 심포지엄은 싱가포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한국 등 아시아와 유럽의 파트너들과 예술가, 사상가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영국예술위원회가 여러분과 공동의 주제를 고찰하고 새로운 실천을 공유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국예술위원회는 일련의 사업에 공동 투자하여 영국 예술가들의 협업과 공동 창작, 공연 교류를 지원했습니다. 한 시지예술 사업에서는 부산과 셰필드 등의 대도시와 지역사회 간에 12개 한국 파트너, 11개 영국 파트너 단체의 공예작가, 벽화 화가, 비디오게임 디자이너의 교류와 레지던시를 기획운영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에서는 영국의 시각 공연예술 제작자들로 구성된 Crying Out Loud가 서울에서 개최된 SDance축제에서 신작 실험 만스를 선보였고 국립장극단은 <트로이의 여인들>을 런던 사우스뱅크센터에서 공연했습니다. 두 위원회가 함께 해온 작업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양국의 작가, 제작자들 간의 파트너십 전통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금번 심포지엄에서 주제로 다루는 평등, 혁신, 디지털, 기후 변화, 정신 건강에 대한 문화의 기여는 모두 두 영국예술위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과제들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해 팬데믹 기간 중에 제대로 가능할 수 없었던 문화예술 기관 및 박물관·미술관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작업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봄, 위원회의 모든 자원을 긴급 대응 기금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고 2020년 여름, 정부에서 창작산업 내의 수많은 사업모형을 지원해주는 문화회복 기금 운동을 우리 위원회에 위탁했습니다. 회복의 기간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에서, 또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예술가와 큐레이터, 관객들과 지역사회 프로젝트들 재설정하고 부흥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해 새로운 10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뿐 아니라 Black Lives Matter, 영국의 EU 탈퇴 등 이후 발생할 모든 일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는 올 봄 발표될 2021년~2022년에 대한 1년 이행 계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의 결의에 다시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계획에는 다섯 가지 주제와 관련된 세부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산업의 코로나 회복 지원 개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며 문화에 대한 현지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예술 단체, 미술관, 박물관, 문화 실무자들의 예술적 목표와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국제교류협력 재정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존 맥카론이 예술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이미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 주제는 지난 12년 간 저희가 집중해온 영역이자 예술이 사회 전반에서 영감과 치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영국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립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부위원장

폴 단

비총관 위원장님, 내빈 여러분,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2일차에 싱가포르에서 참석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국립 싱가포르 예술위원회를 대표하여 소중한 파트너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세미나 첫날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한 시기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국제 예술계가 모여 문화교류라는 중차대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팬데믹이 많은 것을 뒤엎었지만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은 경제뿐 아니라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수많은 산업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예술 활동이 조금씩 재개되는 지금까지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예술가들의 회복력과 창의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밝히려는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이제 발제자들을 통해 예술가들이 긍정과 결의로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 싱가포르 예술위원회의 역할은 싱가포르 예술가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동체를 연결하고 싱가포르 예술의 글로벌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한되는 이 시기에도 국제교류와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예술가들이 국제적 예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이 훌륭한 사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면으로 만날 수 없지만 지난해 얻은 교훈과 경험에 대해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과 발표도 정말 기대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덴마크 대사
아이너 연센

안녕하십니까? 아이너 연센 주한 덴마크 대사입니다.

2021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간에 수많은 문화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와 덴마크 문화청이 MOU를 체결했고 특히 국제예술공동기금을 통해 총 25건의 문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덴마크가 본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덴마크를 대표해 코펜하겐 건축 페스티벌 조세핀 미샤우 디레타가 예술의 코로나 대응과 관점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발제가 많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역동적 문화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처럼 규모 있는 행사를 주최하신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덜란드 더치컬처 대표
케이스 더 호라프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의 더치컬처 네덜란드 국제문화협력센터 케이스 더 호라프 대표입니다. 여러분을 환영에서 직접 뵙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이처럼 의미 있고 시의 적절한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해주신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제 마이커 페르베르크 네덜란드 문화 & 디지털화 연구소 소장인 문화예술 산업의 팬데믹 극복 해법을 모색하는 네덜란드의 펠드렐 사례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문화기관 마레스의 발렌타인 바이반크 관장이 예술기관의 관점에서 특별한 발제를 해주실 것입니다. 유익한 교류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강동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또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AY 1

2021.03.23.TUE, 15:00-18:00

팬데믹 시대의 예술



프로젝트와 플랫폼 너머

심보선 사회학자, 시인,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2021 ARKO 온라인 국제스포지엄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에 기조연설을 받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포지엄의 주제인 '다시, 연결되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연결된다고 했을 때, "다시"란 잃어버린 것의 회복을 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언제부터 연결을 상실했던 것일까요? 혹시 팬데믹은 우리가 이미 잃어가고 있는 연결들을 더 잃어버리도록 가속화한 것은 아닐까요? 팬데믹의 와중에,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제로문' 연결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팬데믹 사태가 현대사회의 삶에 미친 영향을 헤아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바로 '생존'입니다. 팬데믹을 가지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생존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생양' 혹은 '대학살'을 생각할 때, 다른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예외적 사건에 대해 떠올립니다. 팬데믹 시대는 인류 전체에게 질병과 죽음에의 위협을 가하고 사회적 활동의 위축과 파괴라는 해악을 끼칩니다. 우리는 초기 국면의 공포와 혼란을 거치면서, 예외가 정상이 되어가는 사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느새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감염자 및 사망자의 숫자는 그 충격을 관리해야 하는 숫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물리적 근접성이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늘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의 구성원들은 감염을 기준으로, '일반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유증상자'로 나뉩니다. 더구나 일반국민은 그 안에 '무증상 감염자'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포함합니다. 그리하여 팬데믹은 자연 상태의 인간관계에 대한 홀스의 상상,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을 병행시키고 현상화시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계'가 생존의 기본 요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재난의 영향력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 빈곤층, 노년층, 장애인, 난민-에게 재난은 더 가혹합니다. 재난은 이미 취약한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전망에 타격을 가해 붕괴시킵니다. 그러나 레베카 솔닛이 종언한 바처럼 재난은 공식적 시스템이 무너진 곳에서 자발적 협력, 상호부조, 연대를 도모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는 이미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헌신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성은 그러한 재난 공동체의 형성을 더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이가 도움과 지지를 위한 선의와 무관하게,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범시민이란 거리를 두고 접촉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이 득세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과 전문가의 리더십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정부가 제공하는 재난 관련 통계와 강고와 방역지침,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올바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눈과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일상엔 점점 더 플랫폼화됩니다. 플랫폼이 노동과 소비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포맷에 맞추어 회하고 일하고 구매하고 대화하고 즐깁니다. 플랫폼의 추천 시스템이 우리의 취향을 결정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오류의 최소화, 신속의 최적화를 이루어내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해갑니다.

자발적 공동체의 약화, 국가 시스템 및 플랫폼에 대한 삶의 의존은 팬데믹 이전부터 강화되어 온 현상이었습니다. 예술적 생산과 향유 또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술은 역사적인 측면에 늘 적극적으로 응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응전은 예술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아닌 사회를 통해 예술이 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아방가르드 운동은 뽀블이 몰아진 개인들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료들과의 우정과 대화를 통해 예술이

시대에 맞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예술가들에게 동료상(colleagely)보다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 공유, PR, 관객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 예술계의 미투 운동은 예술가들의 동료성이 실은 남성적 패권에 의해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형의 질서였다는 것을 폭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술가들의 동료성은 언제부터인가 예술기관과 공적 지원금의 매개에 의해 맺어지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술가 사이의 동료성이 위기에 빠진 상황 속에서 팬데믹은 그나마 존재했던 예술가들 사이의 느슨한 연결망까지 무너뜨리는 듯합니다. 팬데믹 사태 속에서는 위기에 대한 예술적 창작 자체가 위기 상황에 빠져들니다. 팬데믹은 예술의 위기를 촉진하고 이는 위기의 예술을 위촉시킵니다.

우리는 예술이 예산과 계획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간주되는 시대로 전이되었습니다. 예술가는 전문가이자, 매거자이자, 노동자이자, 사 업가이며, 예술의 자물쇠는 "팔길이 열쇠"이라는 정책적 규범에 가깝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예술의 위기에서 우리는 긴절하게 공적 지원과 개입을 요청합니다. 예술을 신보일 수 있는 더 많은, 더 효율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제 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지원이 아니라면 상업성이 낮고 실험적이고 정치적인 대다수 예술가들의 창작과 생계, 그리고 협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프로젝트와 플랫폼 안으로 공동의 의제를 도입해 왔습니다. 수익과 실적의 인력 속에서도 자유롭고 평등하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살 속에서 구현하는 전략을 추구해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예술가들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실천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소망하고 실행합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활동해오지 아니라 그들이 배운 것, 체화한 것, 추구해온 것, 즉 예술 안에 내재하는 소통과 나눔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로 그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힘을 발화하고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프로젝트와 플랫폼 내부로부터 그 힘을 새로이 발견하고 또한 발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프로젝트란 로지스틱스에 따르는 과업에 불과할 것이며 플랫폼이란 그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자의 환경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술가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목표는 '생존'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대화하고 학습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 민주적인 플랫폼을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하고 실험한 것을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 적용시켜 나가기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과업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한 소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새로이 연결되고 또한 연대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국제 교류의 이자리가 어떻게 국제 연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예술적 사례와 경험을 발표하는 것에서 그 안에 내재하는 공동의 도한 이 국제 연대가 어떻게 또 다시 지역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의제를 및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술의 위기의 위기의 예술 모두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한 실천들로부터 도출되는 공동의 담론과 의제의 성격 및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맞는 효율적이고 창신한 프로젝트의 실행만큼이나 더 긴급한 과제는 예술적 과업을 살행하는 프로젝트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난제, 한계, 가능성, 전망에 대한 토론과 공유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수집해야 하고 목록화해야 하고 종합해야 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더욱 악화되어가는 문제들과 더욱 난명해지는 해결책들과 그 안에 흩뿌려진 희미하고 불박한 기능성들에 대해 숙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빅토르 헤르디(Hvictor Heredia)가 부른 '살아야 할 이유(Razón de Vivir)'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To discover and consider / That all I need is you to be here / With your bright eyes.
발견하고 생각하는 것 / 그것이 내가 당신의 빛나는 눈과 함께 /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의 진부

저는 예술가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존재로 단순히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술가들 밝은 눈을 가지고 더 오래 들어보 고, 더 오래 생각하고, 더 오래 마무리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자리에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자리에서, 작업과 작업에서 그러한 "더 오래"의 태도를 적용하는 사람이 저에게는 예술가입니다. 팬데믹의 상황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등한 인간 본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두가 좀 희생을 사들려야 빠져나갈 때, 가장 나중에 "나가기"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예술가의 기질이 다분하다고 할 것임니다.

팬데믹 시대에도 축제는 계속 된다.

『2020 코펜하겐 건축페스티벌(CAFx) 온라인 개최 사례 소개 : 팬데믹을 바라보는 건축의 관점』

조세핀 미사우 코펜하겐 건축페스티벌(CAFx) 감독



코펜하겐 건축페스티벌은 공공 축제로 건축과 도시 문제에 관한 연구와 논의, 확산의 장입니다. 이를 위해 코펜하겐, 오르후스, 오덴세 등 덴마크 3대 도시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영화 및 토론회, 전시, 가이드 투어, 퍼포먼스, 세미나, 워크숍, 출판 등 공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축제의 목표는 건축의 영역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며 건축과 도시 계획이 삶과 세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참여를 이끌어내고 인식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창립된 CAFx는 스칸디나비아 최대 연례 건축 축제입니다.

코로나 19가 CAFx에 미친 영향과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1일, 덴마크 정부는 전국적 봉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2주 봉쇄로 예정했습니다. CAFx 개막 한달 전이었고 막대한 예산의 대규모 홍보 개시 한 주 전이었습니다. 2주 봉쇄 후에는 세상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 축제를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것인가.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지켜보며 후자가 합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자를 택하지만 국내의 150개 협력기관에 일일이 연락을 취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런 결정에 대해 후회/감의 승인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정말 불운한 2주를 보냈습니다. 사무실을 폐쇄하고 한 해를 들어 세웠던 계획도 폐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상황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적 생존 방법 모색이 필요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를 2020년이나 계획한 타였 습니다. 이 행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전국적 봉쇄 속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두를 움켜진 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건물 축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4월부터 공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 집과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찰과 기록에 대한 공동였습니다. 전세계에서 수많은 에세이와 이미지들을 보냈고 이를 우리 웹사이트와 SNS에 공개했습니다. 5월 말에는 EAH, WHO, 코로나 도시 대응 플랫폼 티브 Think Fast와 팬데믹 내성이 있는 도시'를 주제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수 차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행사를 온라인 활동으로 전환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전후 경제 패러다임이 유럽 도시와 건축 발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예정된 전시를 온라인 방송국으로 전환해 5월과 6월에 걸쳐 6주간 방송을 진행했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코펜하겐의 지속 가능한 전환에 관한 또 다른 전시와 대담은 출판물과 팟캐스트로 제작해 4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영화와 건축에 대한 세미나는 디지털 허브 형태로 웹사이트 게재되어 전 세계 건축 학교에서의 영화와 건축의 만남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축제를 일종의 디지털 미디어 허브로 바꾼 겁니다.

동시에 언제 어디서 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할지 고민했습니다. 10월에 마침내 코펜하겐, 오르후스, 오덴세에서 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해 11일간 백여 건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본래 계획했던 많은 행사가 취소됐고 재개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행사에 목말랐던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남은 행사는 대부분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다시 전국적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도 봉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나 첫째, 우리는 우리 결정에 대한 협업자들의 선의와 협조를 경험했습니다. 또 전통적 지지와 이 성향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19로 문화행사 기획이 어려워지는 했지만 지난 해는 문화 제작 및 소비 방식을 재고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축제는 글로벌 사회에서 문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고 많은 이들이 축제에 참여해왔습니다. 축제는 관광객과 재능 있는 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은 그런 우리 삶을 지배하는 구조를 관찰하고 성찰하고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국제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깨닫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신체 접촉 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식품 위생 준수, 손소독제 사용도 배웠지만 그뿐 아니라 기존의 현지 지식을 활용하고 동시에 IT 기술을 통해 외부 세계와 맞닿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온라인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행동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됐습니다. 수많은 문화가민들처럼 우리도 가상 행사와 디지털 컨텐츠로 오프라인 행사를 대체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컨텐츠들이 훨씬 더 긴밀하게 상호 영향을 미치며 개발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컨텐츠를 어느 방향으로나 움직이는 유연함을 확보하여 팬데믹 상황에서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만남도 각자 없이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컨텐츠로는 시간/공간 제약 없이 더 많은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모두가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팬데믹을 통해 깨달은 점을 토대로 향후 축제, 컨퍼런스, 세미나의 탄소 배출이 감축될 것입니다.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다양한 행동들이 이후에도 존속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과 민주주의를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술가가 처방한 코로나 백신

독일 보트루프 코로나 백신 센터 내 조각전

"Arts to lighten COVID-19 Vaccination" 사례 소개



게레온 크레버

조각가, 뒤셀도르프 클루스터아카데미 교수

저는 물론에 거주하고 있는 조각가 게레온 크레버입니다. 최근 보트루프 코로나 백신센터에서 개최된 제 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트루프는 제 고향이자 비우하우스의 스승 조세프 알버스 한성 미술관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미술관과 예술기관들은 모두 폐쇄된 상태입니다. 전시와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시각 예술가로서 제 경험은 다른 분들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전시는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공연 자체를 할 수 없는 배우나 DJ들과 같은 수준의 재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작업실에서 작품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또 아트아카데미에서 강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경험이 관객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분들만큼 힘들지는 않았습니니다. 작품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작품을 전시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트루프의 새로운 백신센터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건물의 소유주가 먼저 전시를 제안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는 실내 골프장이 있었는데, 그곳을 보트루프 시에 임대해 백신 센터로 개조하게 된 겁니다. 퍼팅그린 정중앙에는 피라 위생 확보를 위해 빈 공간을 복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머뭇했던 거죠.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기관에 서의 전시와 게레온 백신센터 건물에서의 전시는 당연히 달랐습니다. 백신센터에 작품설치를 거의 마쳤을 무렵 소방서에서 작품을 꼼꼼히 살펴 보는 중임에 설치된 흰색 소재 작품을 철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백신 센터에 화염병을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철거하고 발탁이 어려운 B1 클래스 소재의 작품들을 설치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또 다른 재야 사항은 관객들이 작품 감상을 위해 백신 센터에 들어올 수 없고 적어도 지금은 작품을 할 때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작품 보관소가 백신센터 바로 옆에 있어서 전시를 준비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바로 옆 공간에 수년간 제 작품들을 보관할 수 있게 해줬어요. 제 작품들은 크기가 상용한데 그 큰 작품들을 상자에 담아 몇 층씩 쌓아 올린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 그런데 설치할 작품을 들고 모퉁이만 돌면 뒤편 거죠.

백신 접종은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접종 후 20분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지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 내내 앉아서 제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겁니다. 미술관에 서조차 배우 이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상작품을 포함해 작품당 감상 시간은 2분에 불과합니다. 물론성을 다루는 부동의 작품들을 보며 자기인식의 시간을 갖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작품은 대부분 장소 특정적, 혹은 장소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센터에서는 장소 특정적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용이 되는 작품을 두는 것이 너무 학술적이고 자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20년을 이루르는 작품들을 선택해 보관 창고에서 꺼내었습니다. 이런 이렇게 지면 이렇게 하지는 실용적인 이유만은 아니었지만 작품을 꺼내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우리에게만 매개 없는 예술 경험이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위해 미술관에 갑니다. 그런데 불행히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술을 가시적인 의학적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면한 안좋은 현실로부터 잠시 눈을 돌리게 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백신센터에 들어간 주사를 맞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극히 미미한 차원이지만 문자나 묘사가 아닌 비유를 담은 이미지를 경험함으로써 이 경험에 다양한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팬데믹의 경험을 지극히 이미지로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이 관심을 끌었나 봅니다. 제 전시에 언론이 이 정도까지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폐쇄된 가운데 백신센터가 생겨났고 저는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고 분명 최상의 상황이 아니지만 문명한 기반성과 필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맥락을 찾고 새로운 대처 방식을 찾는 것에서 저는 기쁨을 찾습니다.

영국예술위원회의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Let's Create"

존 맥마혼

영국예술위원회 정책연구 담당



지금부터 영국예술위원회를 소개하고 저희가 팬데믹 상황에서 문화예술 기관들을 어떻게 지원했으며 문화예술산업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향후 방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예술위원회는 창작과 문화 발전을 위한 영국의 국립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소위 '팔걸이' 기관으로 정부를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한기금이거나 정책 지원에서 일정한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부문은 모든 형식의 예술가와 예술단체 및 기관들, 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 도서관, 영국 사회 전반의 문화·창작 관련 교육, 지방 정부, 의료보건 등입니다. 2020년 1월, 우리 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이렇하게 될 전략적 비전과 핵심 목표를 담은 10개년 전략 Let's Create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영국 지역사회와의 창의성과 문화를 위한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영국이 개인의 창의성이 존중 받고 꽃피울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 경험을 폭넓게 향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또 기금 지원 기관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매년 잉글랜드 예술 지원을 위해 6억 2천만 파운드를 지원합니다. 기금은 정부 지원금과 국립 북권위원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조달됩니다. 또 정부 부처에도 기금을 지원합니다. 창작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음악교육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교육부에 연 7,600만 파운드를 배분합니다. 연 지출 중 상당 부분이 국립 포트폴리오 기금에 지원합니다. 총 829개 기관이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기금 지원을 받습니다. 대규모 예술 단체에서 소규모 지역 예술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관들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을 지원받습니다.

또 예술위원회 국립 북권 사업 지원금이라는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500개 사업에 약 9천만 파운드를 지원합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 통해 예술가와 다양한 대상에게 기금을 지원합니다. 예술위원회는 기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예술위원회는 전국 2,500개 미술관·박물관을 총괄합니다. 대부분은 정기적인 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 3천 개 공공 도서관과 3만 개 지리적 예술 단체 법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문화산업 25만 기업과 관련 분야 종사자 2백만 명도 개발 기관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이제 코로나 19 대응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은 예년의 경우입니다만 작년은 결코 평범한 해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처럼 영국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는 공공장소가 코로나 19로 극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공연장과 미술관, 도서관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모든 경제 분야에 주요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문화예술 산업도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유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팬데믹에 따른 이중채한치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사업장을 지원하며 근로 불규칙한 시기에 대하여 1인당 월 최대 2천 5백 파운드까지 임금의 최대 80%가 보전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20만 개 사업장의 근로자 950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장들을 위해서도 유사한 지원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장 소득 지원 제도를 통해 190

만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모두 2021년 9월말까지 운영이 계획되어 있어 지원기간은 총 18개월에 달합니다. 팬데믹 종료시점까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총 1천여 파운드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투자로는 조우의 규모입니다.

또 많은 예술단체 및 실무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여 예술 및 예술단체에 대한 채택된 맞춤형 지원을 설계했습니다. 영국예술위원회는 영국에서 첫 봉쇄령이 발표되고 2주 만에 긴급 대응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문화예술 기관들이 즉각적인 경제적 타격에 대처하도록 1억 6천만 파운드를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해 1만 건의 기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문화 및 유산 산업과 관련 분야를 위해 영국정부가 15억 7천만 파운드의 문화 회복 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이 기금에서 지금까지 약 2천 건에 6억 5,600만 파운드를 지급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던 두 건의 공모 프로그램도 재개했습니다. 조직들의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예술위원회 국립 복원 사업 지원 예술가들을 직접 지원하는 창작 지원 등 두 프로그램을 통해 3천 개 사업에 5천만 파운드를 지급했습니다. 또 긴급 풀뿌리 음악 기금을 통해 338만 파운드를 135회에 걸쳐 지원했으며 7개 지원 기금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400만 파운드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8억 1,300만 파운드를 15,000회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금액 면에서나 지급 건수 면에서나 평년의 4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모든 섹터,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도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지난 주, 정부가 문화회복 기금에 3억 6천만 파운드를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예술위원회가 지급하게 될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산업은 어떻게 국인을 어떻게 지원해 왔을까요? 팬데믹을 거치며 발견한 놀라운 점은 개인과 지역사회가 봉쇄에 따른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문화예술을 끌어안음으로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창작이 실로 아미아미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고독과 고립의 긴박을 배제했습니다. 일상적인 정신 건강 문제 관리에 도움을 주면서 지역사회 전반에서 정신 건강을 도왔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연습과 폐 건강을 위한 노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도왔습니다.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수단이자 떨어져 지내게 된 가족들이 슬픔을 토로하는 창구가 되어 희망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이후 공동적인 자발적 창작의 순간들을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적극적인 골목길 기로질과 시로에 노래를 불러주는 이탈리아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영국에서는 셰필드에서 '아마진 장기자랑'이라는 춤을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웃들이 서로를 위해 공연을 해주는 겁니다. 시가 예술가 그레이스 페리가 채널 4에서 진행한 아트 플럼과 같은 TV 주도의 대중 창작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시청자가 참여했습니다. 한 주에 130만 명이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지금까지 2만 5천 점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이중에 일부를 선정해서 팬데믹이 종식되면 맨체스터 미술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BBC 합창단 자취사자자 프로그램 제작한 인터뷰어 합창단 Great British Home Chorus는 첫 주에만 1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영국예술위원회는 가정에 머무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며 BBC와 새로운 파트너십 Culture in Quarantine을 출범했습니다. 북클럽, 노래 그룹, 미술과식물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구성원들과 교감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을 활용할 뿐 아니라 우편으로 테이프와 편지, 책을 보내며 이날로 그식으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창문과 현관을 임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은 후대를 위해 이 순간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품들을 상설 소장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문화예술 단체들도 강단이 쏟아질 만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코로나 취약 인구와 코로나 감염 후 회복 중인 분들의 호흡기 재활을 위해 노래 교실을 열었습니다. 영국 국립오페라단도 Breathel라는 노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고립됐거나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온라인 및 전화 기반 활동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니다. 학습 장애가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런던의 Heart n Soul과 잉글랜드 북서부 위건의 Old Courts는 창작 활동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시를 을 배려했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찾아가는 공연과 활동에 주력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Live Music Now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공연을 했습니다. Arts & Homelessness International과 Museum of Homelessness는 코로나 기간 동안 임시 숙소와 호텔에 입소한 노숙자들을 위해 도서관, 창작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National Criminal Justice Arts Alliance와 수많은 파트너들은 재소자들이 창작 활동을 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재소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하루 22시간 동안 감방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중 봉쇄 상황에도 놓여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해 수천 개의 태백을 보낸 South Bank Centre를 비롯해 인쇄 자료 우편 발송 활동을 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영국예술위원회도 자체 격리 중인 학령기 아동들을 위해 2만 건의 Let's Create 팩을 배송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에 초점을 맞춘 18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 지원 프로그램 Thriving Communitie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개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10만 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 프로그램은 Historic England, Sport England, Natural England, NHS England 등의 기관과의 파트너십

을 통해 진행됩니다.

지난 해 10개년 전략인 Let's Create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 전략을 업데이트하면서 팬데믹 종식과 이후에 문화예술 산업의 진흥과 영국 지역 사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광범위한 세부 협의를 거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예술가, 사서, 큐레이터, 음악인 등 문화예술산업 구성원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년, 교육·의료·보건 등 관련분야 종사자,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 등 5천 명 이상의 의견을 묻고 전략에 반영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요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문화예술의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적, 사회경제적 편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창작 문화 산업 내에서 다양성과 포용, 대표성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문화기관 및 단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회복력이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과제에 응전하기 위해 혁신이 필요함도 확인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이러한 도전에 응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의 세 가지 핵심 결과 중 하나 이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창의적 시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창의성을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창의적 지역사회. 협력적으로 문화에 접근하여 마을과 도시의 번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창의적 문화국가. 영국 문화산업의 혁신성과 협업, 국제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 4대 투자 원칙을 통해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들이 세 가지 핵심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원대한 목표와 수준.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가 원대한 목표 아래 작품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도록 할 것입니다.

포용성과 개연성. 영국의 다양성이 위원회 지원 기관과 개인 작품에 충분히 투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역동성.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의 역동성과 향후 10년 도전과제 대응을 지원할 것입니다.

환경적 책임성.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가 환경 지속가능성을 선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Let's Create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많음 드린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팬데믹 외에도 우리 리가 모인 이 순간에도 불평등, 기후 위기, 환경 훼손, 기술의 지속적 발달에 따른 끊임없는 변화 등 전 세계가 함께 당면한 문제들이 상존합니다. 영국예술위원회를 대표해 오늘 글로벌 창작 공동체가 코로나 19뿐 아니라 이후의 도전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모데레이터 **서지혜** 인문학 컨설팅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지정토론자 **마이크 페르베르크** 네덜란드 문화 & 디지털화 연구소장

이진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장애여성공감 대표

발제자 **조세핀 미사우** 코펜하겐 건축 페스티벌 감독

게리온 크레버 조각가, 두베르도트 문스터아카데미 교수

존 맥마흔 영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 연구 담당

마이크 페르베르크 저는 네덜란드 문화 디지털화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DEN은 네덜란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화산업 지원 기구로, 문화 기관과 문화 종사자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문화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질적인 리서치인 필드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드랩은 미래를 대비한 문화 정책 수립의 토대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실용적 리서치 방법입니다. 필드랩은 이해 관계자 컨소시엄으로써 기존 환경에서 실용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창작 산업이 개발한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최전의 솔루선이 도출될 때 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인 루프 안에서 가능한 해법을 대상 그룹과 함께 검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2020년 11월 중순에 네덜란드 예술 위원회에서는 3개의 도전 과제를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과제인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지시 기관으로써 DEN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과제입니다. 예술위원회는 필드랩을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콘셉트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문화 콘텐츠와 온라인 관객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요. 네덜란드나 다른 국가나 마찬가지로 많은 문화 기관들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지식이 발생해도 이것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관객층도 다양한 플랫폼 안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플랫폼을 상호 연결하는 콘셉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예술 위원회의 목표입니다. 또한 이 플랫폼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또는 하이브리드 예술 형태를 개발하고 그 콘셉트를 구축하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는 새로운 예술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전 과제는 공간 설계입니다. 미래에 대한 디지털과 현실적인 공간을 어떻게든 공간 실험을 혁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필드랩을 제대로 도입하고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가면서 연구를 문화 기관들과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면 문화 영역의 인위에서 다양한 기관들 간에 어떠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인지. 또한 이러한 관객을 핵심으로 한 문화 종사자들을 위한 기민한 작업 방식이 도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필드랩은 그런데 아직 진폭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도전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측면에서 보면 문화부가 승인된 지원기금 외에서 진행되는 실용적 리서치를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향후에 필드랩의 결과를 정책으로 전환해서 문화 산업의 기민함과 회복성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도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마이크 페르베르크 조세핀 미사우 감독님은 축제에서 이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실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문화기관으로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를 지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세핀 미사우 저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변화가 시작됐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이제는 웹사이트도 더 많은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방문자들에게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디지털 포맷을 오프라인으로 가져오고 오프라인 포맷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져오면서 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현재 지회가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존 맥마흔 이러한 디지털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건축가들의 역할, 그리고 또 예술과 문화가 이러한 새로운 도시공간, 공공 영역 등을 어떻게 바꿀지 조세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세핀 미사우 처음 코로나가 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과연 도시가 필요하겠나 도시에서 도망가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죠. 영화관에도 가고 베이커리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폭드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가능해지게 되면 도시 자체가 의미를 잃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오고 있고 도시에 대한 수호는 계속해서 높을 것 같습니다.

존 맥마흔 또한 예술가나 예술기관이 빈 공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 간 연결성은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DAY 1. 팬데믹 시대의 예술

리적 공간을 활용해서 임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죠. 이게 온라인으로 대체가 될 수는 있겠습니단만, 직접 예술을 만나는 생동감 있는 그 순간이 중요한 예술에 있어서는 사실 작용이 기능할까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이브리드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양쪽의 어떤 것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지혜 하이브리드에 너무 중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온라인이나 하이브리드의 특성 양쪽을 유연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진희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HIV 감염인 인권운동 활동가이자 연 구자인 서보경님은 리미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전의 상태 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통을 헤아릴 줄 알게 돼서 몸이 병에 나그려 쉬는 시간, 동시에 비슷한 고통이 언제고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예 비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감내하려 면 어떻게 함께 이 과정 안에 있어야 할까 고민했고요. 이게 가능하려 면 극복이 아니라 코로나 19가 재발생하는 그림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 니다. 첫 번째로는 언택트가 누노명이라는 작인이 한국 사회에서는 상 식처럼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각국의 예술계의 의견은 어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 기술의 접근은 어렵거나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죠. 그래서 불평등한 분배를 언택드로 전 환하는 과정의 주요 의제로 두지 않으면 그것이 기술이 대체하는 것

서지혜 예술가의 관점에서 크레버 교수님은 필드랩이라는 매개를 어떻게 보시나요?

게리온 크레버 예술계에는 필드랩이 이미 있죠.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가들은 박물관이나 갤러리 같은 물



다시, 연결하기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예술, 예술인에 대한 보호 정책을 넘어서 권리화를 위한 논의는 코로나 19 상황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나 기관이 취한 예술인이 더 취약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접근과 정책에 지지를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예술을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할 때 이때 보호를 만한 예술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예술인이 창작 과정에 기관의 중명을 가지지 않고 권리로서 예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고, 각국에서 이런 상황에서 전이나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술인의 노동에 대한 중명을 가지지 않은 지원노동의 권리를 지니려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는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여야 하고,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특히 온라인상으로 공연을 하는 것 외에 실제 대면 해서 만나는 것들을 양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행사를 하는 나쁜 예술인, 문체적 예술인이라는 낙인이 아니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권리와 조건을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 극복이나 상장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코로나 19를 도래하게 한 이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할 수 있는 통합적 정치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제 저는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지혜 긴급한 대처에 앞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미 오래된 근본적 문제를 놓치지는 않는지를 바라보게 하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게 하는 토론의 장면을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써 온라인 비대면 방식에서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접근성의 불평등성, 또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의 문제가 드러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기관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축제나 예술가로써 경험하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맥마흔 영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작가로서의 삶은 일이 불안정하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를 했었고요, 팬데믹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작가들이 예술적 실천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일을 한다든지 배발 직업을 일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이런 방식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작가들의 역할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극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창작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정책과 경제적인 불안정이 예술계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들이 팬데믹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학습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을 역시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강상 충격을 가장 극심하게 입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소수 민족들이 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보건관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불평등의 과정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함께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지혜 크레버 교수님께 미끄를 남겨보겠습니다. 예술가로서 독일에서 경험하고 계신 바는 어떠한지 불평등성에 대한 문제 다루기와 함께 뒤에 질문해 주신 예술인의 지원 제도와 예술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이 제도가 만들어내는 플랫폼에 관계가 되는 예술가들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구조 내에서 예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독일에서는 어떤 경험들로 현재 보고 계시는지 또는 경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게레온 크레버 네, 독일에서도 비슷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지원을 하는 건데 증명을 하고 펀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양적인 성장 위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원을 하면 바로 펀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단만 현재까지 한 세 차례 정도의 지원금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아티스트들, 특히 제가는 아티스트는 다 지원을 했고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내에서도 불평등이 있죠. 아티스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양극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을 거치게 되면 서 취야 개종에 있었던 아티스트들이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굉장히 격조 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또 예술가의 권리에 대해서도 얘기할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특권을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술가의 권리가 보다는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지혜 이런 예술인의 권리, 또는 어떤 불평등 속에서의 상황들에 대해 예술인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이어 페르베르크 네덜란드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면 공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윤리강령이 있고요. 표준성과 다양성 윤리강령도 있습니다. 관객들이 다양한 민족과 인종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사회 여러 계층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적 접근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만 실효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핀 미샤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죠. 코로나 발발 후 1년 가까이 아티스트를 위한 지원 체제가 없었습니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실제로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지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데요. 토론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목소리를 좀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법과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강령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진한점을 마련을 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던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정부가 그 조건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노력 또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 맥마흔 어떻게 문화예술 산업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영국 내에서 백신 여권이라는 것을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공장소 개방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평등의 문제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조세핀 미샤우 덴마크에서도 최근에 백신 여권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 맥마흔 영국도 도입을 했습니다. 오전에 통화가 됐거든요. 백신 여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조세핀 미샤우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은 불평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백신 여권과 관련하여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죠.

사지혜 복잡한 것처럼 대인도 복잡한 문제를, 고려점들을 항상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긍정적인 입장으로써의 백신 여권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또한 또 다른 측면의 문제들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자 조건들이 아닌가 합니다.

관객 중에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비접촉 사회로 전환되면서 비대면이고 관객이 전보다 흐려해졌습니다. 신체적 제약이 전보다 완화되었지만 미래 예술에서 장애인 예술가가 아직도 존재의 의미가 있을지, 미래에는 장애를 주제로 하는 예술이 계속 지속되어야 할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세핀 미샤우 덴마크에서 포용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적이고 직선적인, 정서적인 조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는요.

마이어 페르베르크 네덜란드에서는 포용성이라는 것을 온라인 콘텐츠를 시작하는 방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관객들이 온라인에서 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많은 지원이 확보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접근성이 더 개선됐습니다. 결국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예술가들에 대한 이후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존 맥마흔 영국에서는 11월 20일을 장애철폐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과 수립에 있어 다양성을 담보하고 싶다면 장애가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누구에게 지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누가 의사 결정에 참여를 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사지혜 지원받은 예술가들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 개별 예술가들에게 그 책임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게레온 크레버 아티스트의 어떤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분명 국가의 그런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국가 지원 아티스트라서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책임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시민으로서도 요구가 되는 것이고요.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배경과 온다나 인종이나 다양한 정체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기존 의 논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지혜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도 예술가들의 역할을 모색하면서 지원 정책의 방향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이 사회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진제가 되어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확시 있는지, 그 우려에 대해서는 지원 정책에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어 페르베르크 예술가의 온라인 퍼포먼스 그리고 이것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온라인으로 투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로나 극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술 기관에서도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나가고 실험해나가는 시도들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맥마흔 예술가의 책임은 작품 활동을 하는 기초, 사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새로운 이해를 구축해 나가면서 우리의 세계를 새롭게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특정한 임무를 예술가들에게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역할은 예술가들이 계속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Re:Connection

DAY 2

2021.03.24.WED. 15:00-18:00

팬데믹 시대의 관계, 연결, 교류



팬데믹을 너머 세계, 로컬, 식민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눈뜨다



웅첸 쉐 연출가, 시아터웍스 예술감독

안녕하십니까? 저는 웅첸 쉐입니다. 오늘 기조 강연자로 참석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발생 이후 나타나 팬데믹 이후까지 이어지게 될 세계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핵심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이라는 것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엄격한 이동제한이 시행되고 있고 국가간 불평등도 심각합니다. 부국은 백신 접종을 하고 빈국은 접종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아니라고는 국경을 넘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도입되면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요. 그렇지만 과연 세계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또 백신 접종 이후에는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인권이 확보된다는 것도 정말 그칠지 지켜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21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1년까지는 이동이 상당히 제한되고 2022년 봄부터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해외 예술가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5개월 간 자기자격을 세 차례나 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협업을 버리는 곳, 합업을 적극적으로 키워가는 곳과 물리적으로 고립하며 그 자리에 실제로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협업이 중요할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다양한 문화들이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현지 상황을 낯선 눈으로 보는 국제 관객들의 시선 현지의 상황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방산과 충돌하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이 잘 자리잡고 있었습니. 팬데믹이라는 방산의 충격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직도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디지털 플랫폼 외에는 '국제적인 것'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은 완전히 2차원적이지. 동시에 어쩌면 세계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단계로 나아가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풀려 나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강요받는 1세대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인간과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포스트 휴먼이 공존하는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전환을 가져다 줘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낙관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기계와 인간이 결합된 포스트 휴먼 단계로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강연을 하면서 누누릴로 인한 어려움을 극심하게 느끼는 두 그룹의 예술가들을 보게 됐습니다. 누누릴에서 이전의 상태로 회귀한다 하더라도 Global North와 Global South 간의 오랜 권력 구조와 관계는 유지될 것입니다. 권력과 금융, 경제, 자원은 Global North가 전적으로 좌우하고 Global South는 그 영향력이 제한되고 이들이 불가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Global North에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근대의 상황과 유사하죠. 지난 30-40년간 국제 교류에 있어서 또 여성운동과 다양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획기적인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후기 자본주의로 진입한 지난 40년 간 일어난 강력한 변화입니다. 세계가 새로운 자원을 넘어 국경을 넘어 공감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여성 영화제작자와 작가의 세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해야 할까요? 정말 큰 문제는 팬데믹 때문에 모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강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람들의 물리적 집회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가 개인 차원에서 교류하

고 리처를 진행하고 디큐멘타리를 만들고 국경을 넘어 교류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노화됐고 대형 기관이 대화 를 장악합니다. 여성들에게 이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성들은 오랜 기간 핍거운 투쟁을 벌인 끝에 자유를 장악했습니다. 젠더와 인종, 계급 에 있어 사회적 약자들은 자유의 확대와 사회적 포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진전이 새로운 파권 앞에 무너졌 습니다. 돈과 백신, 디지털 플랫폼의 작동 방식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언어도 큰 문제입니다. 언어를 직접적 구사하지 못하면 이런 디지털 플랫폼들 에서 소외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정보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능력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녹음하는 공간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 정보는 조악이 매우 얕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가공되는 시대입니다. 녹화된 것을 편집하 고 소위 페이코 뉴스로 조작됩니다. 디지털화의 문제는 더 이상 현실과 접점이 없는 채상에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종속되어버렸다는 것입니 다. 신민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신민화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신민화라고 했을 때는 신민화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관계의 위계화가 이루어 진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가 편집되는 상황에서 개인은 정보의 진정한 근원에 다가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신민화되었습니다. 계급과 평등과 관련해 우리가 이를 모든 진보가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사실, 급격히 단절됐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국경을 넘어 교감하고 교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공되고 종속되며 후속적인 편집 과정을 통 해 조작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현장 참석이나 대면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더 이상 3차원 현실에 접촉하지 않고 고도로 압축된 2차원 세계에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경제와 기술의 신민화가 일어납니다. 예술 제작 방식 전반에서도 최근 이런 주장이 나옴 니다. '누노명은 예술 제작의 아웃소싱 방식에도 적용된다.'

예술 제작의 아웃소싱이란 저 같은 감독이 싱가포르에서 다른 국가에 계획안이나 초안을 보내는 겁니다. 방글라데시에 보낸다고 해봅시다. 저는 협업을 위해 방글라데시에 갈 수 없습니다. 계획안을 보내니 현지에서 실행해주세요. 조감독이나 부감독과 함께 진행해주세요. 그림 기획안이 현 지에서 실행되겠소. 현지에서 실행되는 모든 것을 해외의 수석 작가가 통제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 을 장거리 관계, 줄 플랫폼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신민화이지 협업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간 아시아아시아 간 협업, 아시아유럽간 협업에 대해 많은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협업이 기공된 형태로 일어납니다. 수석 감독이 어디가 다른 곳에서 현지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방식이 된 겁니다. 일종의 아웃소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권한은 경 제적으로 더 강하고 자원은 더 많은 곳에 귀속됩니다. 저는 최근 다뤄진 이와 같은 예술 제작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견 평등하고 협업으로 보 일 수도 있습니다. 초안을 현지에서 보내면 현지에서 현지 상황에 맞춰 초안을 수정해나갑니다. 그런데 현지 맥락에 따른 현지 고유의 표현을 다른 곳에 있는 수석 감독이 통제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 투쟁해서 쟁취한 협업의 상실로 봅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들어나까 지 동시대 예술계에서 거대한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어떻게 협업에 깊이를 더하고 현지 맥락에 따라 협업할 것인가.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출 장도 있습니다. 보건의료나 국방과 관련해서만 출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문화예술에도 출장이 필수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협업을 위한 출장도 필수적 이동을 해당됩니다. 얼굴을 맞대고 사람과 사람 간에 협업하고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도 출장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뉴노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축제는 상천과 이동과 논의를 위해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축제가 지역의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간 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자신과 공동체, 우리의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인간 행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 통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 행위는 개인적 매개자의 작은 행동입니다. 현재에 비하면, 혹은 필요한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지요. 과거 축제에서 이런 제의들은 육신을 붙잡고 있는 죽음에 대한 현재의 수금과 자연 속의 죽음, 새로운 생명, 회복, 생명의 지속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 늘날의 축제는 대개 양장권 판매, 등록 간수, 꽃놀이, 오프닝 길라 행사, 전문적인 관리 모델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킹 기회로도 인식되죠. 우리는 후기 자본주의 말기에 이런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페네티엄은 예술과 페스티벌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 사람들의 회합 으로 재인식하고 개인적 매개자로서 사람의 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상상하고 다시 연결하여 생명, 변화, 지속가능성을 재확인하는 단절적인지 도 모릅니다. 즉 페네티엄 이전 페스티벌의 오랜 구조를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들도 사람 간의 교감이 아닌 임정권 판매, 불꽃놀이 같은 성과를 지향했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로컬, 새로운 국제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고민해야 합니다.

새로운 로컬, 새로운 국제에 다져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것이 페스티벌에 무엇을 더해 주는지' 생각해봅시다. 왜 우리 페스티벌이 '국제적'이 되어야 하는가? 그저 상징적인 명칭인 뿐 인제는 쉽게 폐기하고 로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가? 만일 '국제'를 버릴 수 없다면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로컬 맥락을 세롭게 보기 위해 '국제적'이어야 하는 경우겠 지요. 그렇다면 이처럼 새로운 국제 모델에서 어떻게 협업을 지켜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페네티엄 발생으로 국제적인 현장 참여의 기회가 감소했습니다. 수많은 해외 작가, 연사, 매니저, 창작자들이 디지털을 통해 참 여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에 해외 초청 행사는 많아야 세 건 정도가 됩니다. 그 세 건을 위해서도 100명이 자기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기격리 대 상자가 30명이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격리기간을 감안해 3주의 여유 기간도 줘야 합니다. 전 지금 타이페이에 있는데요. 3주간 자기격리 를 하고 나서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스티벌에 꼭 필요한 국제적 요소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선 순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사명 선언이나 성명서가 있습니까? 한 지역의 기쁨을 다른 로컬 맥락과 비교 연구하기 위해 문화중사자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제안할 수 있을까요? 로컬을 위한 로컬이 아니라 다양한 로컬 맥락들이 한 데 모여 깊이를 더하는 트랜스 로컬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스티벌 비엔날레, 영화제까지도 국제적 행사로 브랜드를 합니다. 국제'행사'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이제는 어느 국가에서나 프로토콜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페네티엄 상황에서 이제는 국제적 브랜드가 아닌 다양한 로컬을 들여다보는 로컬 맥락으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로컬 간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트랜스 로컬의 실현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미래의 국제 페스티벌과 비엔날레가 로컬 맥락과 어우 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뚫듯, 나선구조처럼 국제적인 것과 로컬이 나뉘고 사출로 아우러져 현대 역이며 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 고 서로를 더 풍성히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아우러짐이 미래의 페스티벌과 비엔날레의 DNA에 깊이 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상적 전략 이 아닌 첫 단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지털화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될 것인가? 이 질문도 던져봐야 합니다.

국제와 로컬처럼 온라인과 현장 행사도 나뉘고 씨줄이 되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협업에 있어 작업의 상당부분, 30% 정도를 디지털 플 랫폼으로 수행하고 이후에 현장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죠. 현장에서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어떻게 공동작업을 할지에 대한 논의는 디 지털 플랫폼들에서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현장에서 협업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소모가 많았던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와 '로컬'을 생각하면서 탈식민화라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회귀하게 됩니다. 더욱 배타적인 세계, 기술의 세계로 나아가는 지금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탈 식민화할 것인가? 빈국보다 부국을 선호하는 자원 세계를 어떻게 탈 식민화할 것인가? 예를 들면 과거에는 문화간 정치 역할을 매기하 면서 어떻게 관계의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주력했습니다. 권역 대상은 항상 빈국의 작가여야 할까요? 항상 초청 작가가 자기격리를 해야 하는 것 일까요? 그 얘기는 개척국, 그러니까 초청을 위해 비용을 대는 측은 권력을 쥐고 있고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권역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기든 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아시다시피 자기격리를 하면 여러 측면에서 자유를 제한당하게 됩니다. 항상 같은 사람들이 권역 대상이 되어 할 까요?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 작가들과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권역 대상이 되는 것은 이들 국가의 작가들입니다. 협업을 위해 입국하 는 과정에서 검역을 받습니다. 탈 식민화라는 아이디어는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양한 협업자들 간의 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만 들어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정보를 조작하는 권력 구조를 넘어서는 것이 미래의 디지털화로 나아가는 더 정당한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작업을 포괄하는 거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오랜 기간 함께 싸워 평등한 협업을 상상하 게 될지 모릅니다. 생별, 젠더, 인종, 소수자, 장애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 행동, 민권 운동과 마찬가지로 페네티엄을 지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상상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보다 더 관대해지고 보다 분산된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관계맺기의 새로운 양상 : 예술과 정신건강



에스메 와드 맨체스터 박물관 관장, 문화건강협력회 이사



저는 문화예술이 건강과 공동에서, 특히 정신건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문화·건강·웰빙 연합(CHNVA) 의장을 맡고 있으며, 맨체스터 대학 소재 맨체스터 뮤지엄 재직중입니다. 맨체스터 뮤지엄은 영국 최대 대학 박물관 중 하나로 자연과학에서 공도, 지질학 등 인류 문화에 이르기까지 백과사전 같은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뮤지엄의 사명은 지속가능한 세계와 문화 간 이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와 세계를 향한 동종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느꼈던 스스로의 연약함과 무력감이 지금은 코로나 19의 영향을 아직 전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봉쇄가 시작되던 3월 말과 4월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서로를 돕고 공감하며 연대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작가 리베카 슬넛은 이 시기를 너무나 아리게 하는 보물이자, 빛, 에너지원으로 인식하려고 부탁합니다.

맨체스터 뮤지엄 상주 미술 치료사인 클로이 사이언스는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온라인으로 작업을 전환하였고, 직원 자원봉사자 모두 온라인 미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안녕, 특히 정신건강에 집중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신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함께 일하며 다른 이들의 정신건강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까요?

맨체스터 뮤지엄 가장 위층에는 지폐 창년들을 위한 특화 대하인 프로젝트 인크가 있습니다. 뮤지엄 자신 프로그램이자 협업의 실험로 지금은 무지럼 최상층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쇄조치로 뮤지엄이 폐쇄된 상태지만 프로젝트 인크 학생들에게는 날마다 뮤지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정신문제 해결에 있어, 나아가 향후의 정신적 위기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박물관의 전 몸적이고 통상적인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분부를 둔 프로젝트 인크는 여타 기관들과 협력하여 맨체스터 시민 역으로 활동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여타 많은 기관과 마찬가지로 박물관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던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Muso Baby도 그렇습니다. 음악 치료사, 수많은 의료 기관들과 진행하던 이 프로그램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뮤지엄도 웹사이트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특히 이동제한 기간을 염두하고 집에서 즐기는 맨체스터 박물관 콘텐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봄 제공자들을 위한 자료에 한 색상을 할애했습니다. <소유하고 지무하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포용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수많은 청년과 가정과 시민들이 디지털 세상에 접속할 수 없거나 접속이 제한적입니다. 지난 해 봉쇄조치가 시작된 직후부터 우리 시 지역의 공공보건 기관과 예술 기관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35개 청의진 들을 키트를 탄생시키기 위해 기관과 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꽤 16,000개를 어르신들에게 배포했고, 꽤 22,000개를 13-20세 청소년에게 배포했습니다.

맨체스터 뮤지엄은 Hello Future라는 변화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해를 인정하고 상상력과 포용, 따뜻한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뮤지엄 변혁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타 기관과의 경쟁하라는 악습과 전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기능성과 공감의 언어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시대까지 이어지는 과제입니다.

정신건강 의화에 일조한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일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을 통한 돌봄의 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맨체스터 뮤지엄은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결의의 일환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독려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아일랜드 코러스>라는 신작을 제작했습니다. 전세계가 고요해진 순간을 성찰하며 야외에서 녹음된 자연의 소리와 일기 패턴 데이터의 음성 분석을 결합한 곡입니다. 간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뮤지엄의 문을 열게 될 때 봉쇄의 경험과 회복의 희망을 품고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는 관람객들을 이 곡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경탄과 기쁨,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다시 있는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 경탄과 기쁨,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관들이 거대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이 된다면, 장소와 분야를 넘어 새로운 파트너십과 협업의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예술가들과 관객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들에게서 배우고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과 속도를 맞추어 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희망과 소속감, 유대의 서사를 전하게 될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예술 생태계와 국제교류

김성희 음신 퍼스널 감독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총체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이에 최근 자연과 생태계를 재검토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관계를 설정하기위해 노력하는 예술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술이 어떻게 제작, 인식, 소통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시연되고 경험되어야 할지 예술계 생태계 전반을 성찰하고 이러한 사유를 자연의 생태계로까지 확장시켜서 예술의 다른 미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스웨덴의 인우가 마틴 스펠베르크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주체성 생산에 대한 저항으로, 예술의 역할이 오히려 주체를 폐기하는 것에 있으며 오늘날 예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젊은 예술가의 주체표현이 아니라 무심하게 관객을 풍경으로 자연으로 데려다주는 베나 버렘과 같다고 제안합니다.

그의 신작, <그들은, 배경에 있는, 야생의 자연을 생각했다>는 작품에서 이러한 사유를 잘 보여줍니다. 서울에 있는 두 명의 연인, 베를린의 한 명의 연인, 런던의 한 명의 연인 이렇게 총 네 명의 연인이 세 도시에서 4인무를 하면서 하나의 연인을 완성하는 작품입니다. 서울은 보이는 바와 같이 해가 지는 시간, 유럽은 반대로 해가 뜨는 시간이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4인무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동기화가 되는 순간, 젊은 기자의 춤을 보는 방식과 달리, 시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관객은 세 장소의 춤을 동시에 각각과 확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작품은 안무가의 어면 매시라틴즈키 무용수의 스펠베르크를 통한 문장보다는 관객이 풍경을 바라보고 감각하는 것을 의도하므로 여기에서 풍경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틴 스펠베르크는 '젊은 소위가 아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공공의 것, 평평한 춤 누구나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극장이 아닌 공연장에서 관객들과 다른 방식으로 만나고 경험의 방식을 다르게 변화시키면서 기존에 예술에서 말하는 예술가의 주체성의 표현이 아니라 자연과 풍경을 감응하게 해주는 예술의 다른 버전을 보여줍니다. 생태계와 관련해 자본주의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미약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인데, 자본주의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저항으로 굉장히 고집스럽고 무모하게 쓸데없는 일여를 끊임없이 생산하지만 아군이 아니라 이렇다등과 시를 생산해내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인우가 메테 에드바르센의 <오호의 햇살 아래 시간이 정들었네>를 살펴보면 작품에서 파도머는 매우 중요함니다. 파도머는 자신이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책을 조사도 빼놓지 않고 통째로 외웁니다. 잘아있는 책이 되어 도시권에 소장되고 도서관에 방문한 관객이 읽고 싶은 책을 고르면 그 책파도머는 독자를 도서관의 어느 장소로 데려가거나 밖에서 산책을 하며 자신의 내용을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도 쓸모없는 것이죠. 책을 통째로 한 권을 외운다는 것이 돈이 되거나 이름을 창출하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고집스럽고, 무모하고, 쓸모없는 일여를 생산하는 예에 딱 맞는 과정입니다.

마틴 스펠베르크와 메테 에드바르센의 작품은 모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초청 공연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공연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국제 제작의 의미와 방법론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 교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매우 흥미로운 국제 교류의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 생태계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기술과 가상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 스마트폰, 게임, 소셜 네트워크, 유튜브 등 가상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보냅니다. 현실에서의 시민권을 가상 세계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불거려가 넘쳐나고 누구나 나도 예술가인 시대에 콘텐츠 창작은 더는 예술가의 고유한 영역이 아닌 듯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극장에 가서 무대 위 공연을 감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연극은 다른 시공간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요?

김지선 작가의 <슬픔의 집>이라는 작품은 극장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는 가능성을 실험한 좋은 예입니다. 이 작품은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 속에서 가상의 극장을 짓고 공연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에라켈: 다크투어> 이벤트가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배틀 그라운드' 속에서 진행된 이벤트로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배틀 그라운드 게임인데, 한 명이 생존할 때까지 서로를 공격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서버이별 게임입니다. 이 게임 속에서 진행된 <에라켈: 다크 투어>이벤트는 장기간 100명의 관객이 폭력적인 게임 속에 들어가지만 게임의 룰에서 벗어나 연대의 과제를 수행하며 그 인의 풍경, 패하를 속에서 '다크 투어'를 합니다. 공동체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이벤트 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스트리밍, 유튜브 등의 가상공간에 굉장히 도구적으로 접근하는데, 이 이벤트는 극장 공간이라는 예술 생태계를 검토하고 극장 공간의 확장으로 가상 공간에 접근하는 관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제 국제교류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에 참여된 타자적 시선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20세기 서구의 발명품인 주체와 '타자': 주체는 의의 마틴 스펠베르크의 사유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주체와 타자, 이것은 사구를 중심에 위치시키고 그 밖을 타자로 규정하는 이 분법적이고 위계적인 사유 방식입니다. 보이는 것은 인간 동물원의 사자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의 인종차별, 식민주의에 기반해서 비서구인들을 동물원에서 전시하고 사구 관람객들은 구경하던 광장하 야만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타자를 바라보는 식민주의적 시선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선은 2021세기에도 존재합니다. 브렛 베일리는 <전시 B>에서 아직도 이러한 타자적 시선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비판적으로 질문합니다. 과거 국제교류가 이국적 민족, 민족 문화를 작극적으로 소개하고 민족 문화교류의 방식으로 채택했던 때가 있었고, 아직도 일부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주체와 타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근대주의적 사유방식은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뿐더러 이미 연금했듯 많은 예술가들도 주체를 폐기해야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술계에서는 국제교류에 참여된 식민주의적 시선에 대해 스스로 통렬한 성찰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를 평평하게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국제교류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국제주의이고, 이러한 국제주의가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민족주의, 자국중심주의, 인종주의가 부상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은 이를 강화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술은 이러한 불리와 그림으로부터 저항해야하며 그 어느때보다도 국제주의를 고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The (Re)Construction of the World라는 국제 컨퍼런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무너진 세계질서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원조, 연대, 정치의 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페미니스트 운동, 기후정의, 반인종주의 운동, 민주화 운동과 같이 초국가적 연대의 실천을 통해서 장치를 갱신하고자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초국가적 연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활동가가 아니라 예술가인 만큼 예술이 할 일을 해야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사회 변혁을 위한 예술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연대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국제 교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국가적인 연대의 장을 향한 국제교류를 확장하면서 발표를 마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국제교류의 전망과 대응

발렌타인 바이빈크 현대문화기관 마레스스 관장

저는 진과, 경험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우리 모두가 집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모두가 경험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문화 기관들은 이 경험을 어떻게 다룰지 알고 있을까요? 사실 진과 경험은 상반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집은 피난처, 일상, 안식과 편안함을 상징해왔습니다. 반면 여행은 발견이자 모험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이 우리의 영원한 디지털 은신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마레스스에서는 온라인 프로그램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무언가가 열린다는 사실만으로 참석자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폭발했습니다. "이제 제발 진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경험을 갈구했습니다. 그 경험을 공공기관이 줄 수 있을까요?

현대문화기관 마레스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레스스는 세계가 다양한 예술적 실천으로 풍요하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문화를 강조합니다. 마레스스에서 최대한 많은 예술적 실천을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 마레스스는 유서 깊은 마스트리트 중심부의 아름다운 건물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술적 실천을 제시하고 시각예술, 음악, 공연, 무용, 요리까지 모든 분야의 예술가들을 모십니다. 하지만 마레스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감각과 신체 언어에 집중하는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몸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나아가 우리 몸이 다양한 지식의 거대한 저장고임을 역설합니다. 예술이 감각적 세계 인식에 대한 소 유권을 주장해왔지만 하지만 이것은 예술기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잘 인식하기 위해 또 우리 몸을 잘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감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마레스스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무는 이런 감각체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예술적 실천, 나아가 삶이 감각적 경험들로 가득차는 아이들에게 관객들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마레스스는 이를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하나는 몸을 훈련하는 데 집중하는 공공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직접 경험에 집중하는 전시 프로그램입니다. 마레스스는 작가들을 초청해 환경 설치작품을 만들도록 합니다. 온 건물을 채우고 변화하는 공간과 관점으로 관람객을 완전히 휘감는 감각을 생각해보세요. 전시실과 벽, 바닥, 천장을 미지의 사체로와 작품들이 몽골처럼 이어 나갑니다. 대개 이런 전시들은 관람객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라는 안내도나 표시가 거의 없습니다. 동시 입장하는 관객수도 매우 적습니다. 한두 명 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휴대폰을 끌고 아무무나 전천후 움직여달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입장 관객에게 사전에 조건을 부여합니다.

마레스스의 전시는 온갖 것을 하도록 몸을 자극합니다. 감각적 인식을 통해 신체에 눈을 뜨도록 자극하죠. 미술관을 찾으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때문에 관람객들은 당황합니다. 온도 변화, 인식, 문제, 시간 등등 미 관에서 경험하지 못할 온갖 것들을 경험합니다.

몸을 인식하도록 일깨운 후에는 그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몸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감각을 훈련합니다. <감각 훈련 시리즈>는 학자와 과학자, 예술가, 창작자, 시민들이 경험의 본질을 함께 고찰하는 월간 모임입니다.

경험에 대한 감각의 미술관과 공공기관들이 실질적 경험의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기관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한 작품에서 다음 작품, 한 전시실에서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는 수중에 머물러 있다면 사람들이 집 밖에서 찾는 무언가에 대한 강령을 채워주지 못한 채 집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만드는 데 그치고 맙니다. 문화예술기관들이 관람객의 감각적 잠재력을 자극하며 감각을 충족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 관람객의 몸이 깨어나 모든 잠재력을 인지하고 몸입을 통해 문화적 경험의 감각적 경험으로 풍요워지고 몸이 훈련되어 예술을 더욱 풍성히 감상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자신은 더욱 풍성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토론

모더레이터 **지혜원** 공연평론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객원교수

지정토론자 **박지선** 프로듀서그룹 도트 크리에이티브의 프로듀서

쿠오 지안 홍 싱가포르 사이버 프래티스 예술감독

발제자 **에스메 외트** 맨체스터 박물관 관장, 문화건강행위협회 이사

김성희 울산 퍼시터빌 감독

발렌타인 바이빈크 현대문화기관 마레스스(Mares) 관장

하나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팬들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렌타인 남매도 감각의 말살을 드립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저는 공연장을 떠돌아다니는 데요. 시작점이 정말 저와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히체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를 발표를 통해 고민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예술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린 지금의 세계에서 과연 내 말이 틀리나. 이런 고민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급분들과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디지털 도메인을 새롭게 탐색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현장감 있는 경험이 과연 무엇인가, 라이브한 경험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양쪽의 세계를 우리가 잘 융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원 네, 쿠오 지안 홍 감독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자의 의견까지 듣고 토론을 이어서 발표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코로나는 역사상 유례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열기로 찾아왔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위치에 서 있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같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 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시민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식민주의적 사신 탈피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위기에 대한 인식과 변화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형성을 확장시킬 가장 세상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는 혐오의 생산, 정보의 권력화에 따른 위폐화, 시민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성찰과 탐색,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지난 1년간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교류와 소통을 해왔는데요. 앞서 공유해 주신 많은 비디오텍스 의 여러 활력이 있어 왔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안전에 위협이 있는

지혜원 네, 쿠오 지안 홍 감독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자의 의견까지 듣고 토론을 이어서 발표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선 코로나는 역사상 유례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열기로 찾아왔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위치에 서 있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같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 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시민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식민주의적 사신 탈피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위기에 대한 인식과 변화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형성을 확장시킬 가장 세상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는 혐오의 생산, 정보의 권력화에 따른 위폐화, 시민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성찰과 탐색,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지난 1년간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교류와 소통을 해왔는데요. 앞서 공유해 주신 많은 비디오텍스 의 여러 활력이 있어 왔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안전에 위협이 있는

지혜원 네, 쿠오 지안 홍 감독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자의 의견까지 듣고 토론을 이어서 발표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속에서도 지수적으로 교류를 해야 하는가? 왜 교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결국 예술의 역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채교란 관련해서는 김성희 감독님께 질문은 받고 싶는데요. 기안설 내용 중에서 누노베는 예술 제작의 아웃소싱 방식에도 적용된다. 또 말미에 해 주셨습니다. 국채의 봉쇄로 인해서 이러한 방식이 실제에 가도 될지 진행이 됐고 한국에도 직원에 이러한 예술 제작의 아웃소싱이 일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작인을 염두에 지켜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다른 시민화와 협업의 봉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모빌리티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이런 방식의 협업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시대의 현대예술에서 예술가가 직접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에서 이후에 예술 제작의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후에 받아들이려야 하는 새로운 국채화함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협력에 있어서 시민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에 있어서 제가 앞서 언급했었던 그런 모빌리티와 또 다른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와 좀 덧붙이고 싶네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그런 그런 모빌리티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투어를 통해서 경제적 활동의 유지를 하는 예술가들의 생계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스 코로 시나 대의 자연 기간과 공공 예술 기관들이 예술가의 이동성에 관해서 그런 모빌리티에 더 모빌리티화관정과 더불어 어떤 변화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자연 제과의 구조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혜원 지급부터 발표를 해 주신 우리 발제자들과 그리고 토론자들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세운은 세대, 세운은 시대의
예술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들이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광장형 중요한 학교교류에 있어서 광장형 중요
한 이유 중 하나라고요. 어떻게 평등한 학업 관계를 이루고 또 어떻게 고
를 형성해야 할지, 수 있겠나 세운은 기준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서서 각성과 기대가 함께 교차하고 있는데요. 김성희 강도님이 좀 더 추
기적인 의견 또는 대담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석 국회교류의 방식에 주관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협업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관 중심, 또 국가와 국가 간 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런 개인,의의의 협업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아티스트가 원하는 원하지 않는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그렇게 짜인 컬라보레이션 프로그램 안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를 흔하게 많이 보게 되었어. 그 조건 자체가 그러한 위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쉽지 않았어. 물론 과연 이 컬라보레이션이라는 틀이 특하나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인데도 그런 것인 것 같아. 과연 예술가를 위한 것이라. 과연 좋은 것이었을 때 그런 것인 것 같아. 과연 예술가를 위한 것이라.

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건강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현업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초기에 기업들이 국제교류를 쫓아 많으니까 국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찾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기업이었고, 이 때문에 기업들 가지고 교류를 하다 보면 작가들이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면 기업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성취되어 크지 않았다는 면에서 과연 국제교류라는 표현을 쓴 일 안에서의 컬래버레이션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원 김성희 감독님께서는 국제교류라는 프레임 안에서 협력 포는 구조적인 문제, 협력이라는 것, 칼레바레이션이라는 구조에 있어서의 다시 생각해야 하는 지점들에 대한 질문과 또 함께 생각할 지점들을 먼저 주셨습니다. 지금이 심도있음 그리고 그칠고요, 관계, 또 예술가들간의 관계 또는 예술가와 기획자, 예술가와 관객 또는 국제적인 관계 사이의 관계의 교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새롭게 생각하고 또 확장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먼저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랜타인 바이브코 디지털과 경험 세계관에 있어서는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것 같습니다. 사회의 모든 움직임이 온라인 쪽으로 향하고 있어, 우리가 물에 대해서, 실제의 현상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고, 그를 통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해 드리면 바로 글로벌과 로컬의 관계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것은 글로벌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로컬에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로컬, 현지 특이적인 재능을 우리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원 이제 로컬과 글로벌 또는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 ‘팬데믹 시대의 관’에 연결, 교류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살펴보면 예술이라는 건 안에서 예술이 맺게 되는 관계가 있을 거고요, 또 예술을 어떻게 관계시킬 것인가, 어떻게 교류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술 안에서의에서의 관계들을 서로 써나가기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선 지도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획자로서 어떤 일들이 어
그러지거나 문제가 됐을 때 그 일들을 추적하다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에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
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초기적적 연대도 필요하고 예술가 그들
우리가 협력이라고 본다하고 하면 그 협력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
되는냐고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에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맺어온 예술가들 간에 서로 문화적, 예술적 관점을 통해 서로 시작된 협력들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굉장히 좋은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술 중심으로 또 예술가에서 시작해서 협력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특히 한국에서는 광장성 국제교류가 중심이고 다른 중심들이 만들어지고 기간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강해서 국제교류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구조 안에서 국제교류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또 확장하고 예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트 시대에 예술가들의 이동성들이 또 확장하고 예술가들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바람직한 흐름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공의 정책이나 방향성들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김성철 저는 오히려 한국의 정책 문제에서 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중 앙 양 권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기업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하나 서울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한테 지원이 되죠. 예술가로부터 시작하면 예술을 그리고 그 작업들을 국제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매개자의 역할입니다. 문제는 초창기는 청사진은 이미 페스트톱이나 극장이나 본격화 돼 있고, 거기서 작가들을 찾는 구조인 거죠.

계속해서 협력에 매기하고 MOU를 맺고, 사망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반복해서, 그것으로 국가의 대표 표지이다. 대표 누구, 매일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그것으로 국가의 대표 표지이다. 그런 식의 교류는 굉장히 강력하지 못하고 안 하니까 안으로 돌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장 적절한 하도 다투면서 서로를 몰아내려고 한다. 이것은 매개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이 너무 모순이니까, 그 매개자가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이 모순이니까 그렇고, 거기들은 자업자득을 가지고 있고, 중앙에서 작가를에게 바로 가게 되어있고, 그 작가들은 자업자득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관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자업자득이 없는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는 데도 되면서, 그 관계, 연결, 교류가 발생하고 있고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 중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혜원 아무래도 김성희 감독님이 한국적인 상황, 특수성을 같이 이끌어 줄 수 있는 데요. 그렇죠, 많은 국가들이 예술 정책이나 한인이 워킹홀리데이의 역할이 굉장히 좀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예술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현실성을 살피게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과는 현장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만, 우리 지난 흥 감독님께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쿠오 지안홍 사실 오랫동안 이런 협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출장을 직접 가야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직분을 쌓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런 데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상황을 체크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바다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자라게 물론 많은 사람들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창작 작품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정물상을 갖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개인적인 것이어야만 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술가가 원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아 주고 과연 공평한지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일까요? 사실 이걸 실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까.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비조나적인 효과성, 효용성, 이것도 사실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평한 비판 주체이고 이런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술로 가게 되면 우리의 몸과 인간의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가면 코를을 잃을 수 있는 것이고, 노동화, 비즈니스 구조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예술가 본인의 감성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인데요.

지혜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에스데와 드 저는 사실 관청이 조금 더럽습니다. 제가 말쑥드리고 싶은 부분은 광범위한 진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품이나 국제적인 것으로 사실 차이를 많이 하게 되면서 거래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음으로, 사실 차이를 한다면 MOU 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을 해주신다는데요. 그러면 관계 중심적으로 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 파드민을 오래도록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대 사람의 고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공공의 가치뿐만 아니라 연결성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전의 공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저
희가 유령에서 최초로 호주 원주민 공동체에 저희 미술관의 소장품을
반환했습니다. 식민주의 결과로써 저희가 추하게 된 소장품이었는데

하게 되면서 결국 소장품 반환까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까 제가 후주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또 호주에서 영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저쪽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다양한 회의의 화를 하게 되면서 이 소성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리고 반할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지 어떻게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게 되면서 이 소성품이 돌봄의 문화로까지 확장됐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지향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저회 같은 경우에는 기간 주도로 시작이 됐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의 생태계, 그러니까 교감과 연결성의 문화와 생태계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혜원 상당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부럽기도 한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기관이 주도했지만 결국에는 연대와 또 관계라는 그런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정말 모든 예술계 또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렌타인 바이빈코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로벌한 국제교류를 하고자 할 때 항상 그 기관이 주도하는 또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인프라가 돌아옵니다. 이 교류를 촉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세부 사항들을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 만요. 그래서 결국에는 촉진하고 사치를 하고,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시작되는 것은 기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이제 거기에 예술적인 콘텐츠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술가 주도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원 우리는 예술가와 또 기관, 이런 이야기, 또 예술가 사이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초국가적인 연대 또는 연결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초국가적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다른 관계, 다른 지역에 있는 또는 라이브 환경이 아닌 다른 관객들과의 넓은 관계 맺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바람직할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발렌타인 바이빈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부분은 이 교류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팬데믹 이전에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목해야 합니다. 경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로컬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모든 요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다 지형을 과거에도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팬데믹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대한 상황이 열어나 중요하지 다시금 깨달았다는 겁니다.

박지선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세상이 굉장히 넓게 우리 삶 안에 열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술가들이 많은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예술가들이 국제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들을 얻고 그 다음에 그런 새로운 관점들이 예술 작업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이 되면서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들 전 세계의 관객이 하나의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경험했던 이러한 초국가적인, 연대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물리적 공간에서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예술가들이 관계를 확장하듯이 관객들도 초국가적으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며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혜원 조금 이 질문을 확장하자면 사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또는 디지털 환경으로 예술의 경험들이 확장되어갈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연장에 따라서 또는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제한 조건이 생길 수 있고 물리적인 이전의 예술 경험하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인에서의 불평등 또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객들의 경향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확장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술과 어떻게 연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아낌없이 듣고 싶습니다.

김성희 저는 지금 관객의 체함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게 없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른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혜원 네, 관찰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성희 아까 초국가적인 연대라는 얘기는 제 발표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 젊은 시간대에서 초국가적인 연대에 대한 사례들, 이런 얘기들을 좀 자세히 못 하게 좀 아쉬워서 여기서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직 예술계에서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아직 적절한 사례를 찾지 못했지만 얼마 전 홍콩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다행히 게임 안에서 다행히 다행히 발견된 장구의 장구로 활용을 해서 홍콩 운동의 슬로건을 다양한 사람들이 배포를 하고, 생서신이 있으니 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을 오히려 그런 온라인, 그것도 심지어 다행히라는 게임을 통해서 연대의 방법을 찾는, 그러한 사례를 보고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낀 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연세대학교 라이브라라고 해서, 김영민을 끌어들인다는 디지털 도서관이 있어요. 그 라이브라에 들어가 보면 전 세계에서 입장 받고 있는 많은 김영민한 기사, 책, 글이 다 보관돼 있고, 이것들을 미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쿠오 지안 홍 제가 싱가포르를 대표해서 제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맡 쓸데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들 어왔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국기를 날릴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해에 많이 알려진 부분이 디지털 플랫폼이 도입이 되면서 글로벌과 로컬이 동시에 공존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싱가포르의 다문화, 다민족 공존입니다. 그래서 옹화이라는 것이 아주 익숙한 수백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술이라는 것이 교류에 있어서 그리고 배움에 있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발전해나가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싱가포르 시장 내에 상당히 국한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확장해야 하지 않을까 지평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국제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교감과 교류가 아주 핵심적인 구성 요소 역할을 합니다.

지난 해에 특별히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큰 발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교류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혜원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다시 써 가야 하고 다시 만들어가야 하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쿠오 지안 홍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국제 문화 교류의 방향성에 대해서 관객들이 질문을 미리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감독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21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성과

- 국제예술공동기금 사업의 5개국 파트너 기관(영국예술위원회, 주한영국문화원, 덴마크문화청, 국립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더치컬처 국제문화협력센터,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연대하여, '2021 ARKO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주요 예술가 및 문화 예술 정책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하여 코로나 시대 미래 지향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 팬데믹 이후 5개국의 예술정책 비전, 운영방향과 전략 등을 공유하여, 국내 문화예술 현장에 향후 파급 효과를 전망하였다.
 - 3.23(화) 심포지엄 1일차에는 '팬데믹 시대의 예술을 주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위기의 시대일수록, 예술과 예술가가 스스로 가진 가치와 사회와의 연결성을 고민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과 더불어, 문화예술 기관 차원에서 예술 진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에 대해 각국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도출하였다.
 - 3.24(수) 심포지엄 2일 차에는 '팬데믹 시대의 관계, 연결, 교류를 주제로 팬데믹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교류, 그리고 예술 분야의 국제교류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성찰을 하는지,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 3.23(화)~24(수)간 비대면 방식으로 유튜브(YouTube)(국문 및 영문 계정)와 줌(Zoom)을 통해 전 세계 온라인 생중계 되었고, 약 600여명의 랜선 관객이 실시간 참여하였다.
 - 행사 이후에도 ARKO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계정을 통해 약 1천여명 이상 다시보기로 시청하였다.
- ※ ARKO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유튜브(YouTube) 계정을 통해 다시보기 가능

Day 1 March 23(TUE.), 2021

Arts in the time of the pandemic

On the first day of <2021 ARKO Online International Symposium>, under the theme of 'Arts in the time of the Pandemic', we had a chance to share several cases and perspectives on how artists and arts are coping with the corona pandemic situation.

Professor Boseon Shim, a poet and sociologist, emphasized the urgent need to discuss and share the challenges, limitations, possibilities, and prospects arising from artistic projects and platforms in his keynote speech.

Copenhagen Architecture Festival Director Josephine Michau shared the case of hosting the 2020 Copenhagen Architecture Festival online after a nationwide blockade due to the corona pandemic. Introducing the case, Gereon Krebber said that although there was no medical treatment effect, it was able to turn our eyes away from the dark reality we face. John McMahon of the Arts Council of England presented how the Arts Council of England supported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in a pandemic situation, and how the arts and culture industry supported the community.

In the discussion that followed, the director of the Dutch National Knowledge Institute for Culture & Digitalization, Maaike Verberk, introduced Field Lab, a research conducted in the Dutch cultural industry, and Jinhee Lee, a member of the Arts Council Korea, raised the issue of inequality, which has deepened since the corona pandemic.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support of countries and the social role of artists in resolving the inequality problem.

Day 2 March 24(WED.), 2021

Relationships, connections, and exchange in the time of the pandemic

On the second day of <2021 ARKO Online International Symposium>, under the theme of 'Relationships, Connections, and Exchanges in the time of the Pandemic', the pandemic increases uncertainty than ever before, the breakdown of exchanges between countries, competition, and the reverse globalization of individual lives. During the intensified period, we took a moment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pandemic on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Director Ong Keng Sen, who represents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in Singapore, emphasized in his keynote speech that we should be wary of the digital colonization created by the pandemic.

Esme Ward, director of the Manchester Museum in England, introduced new aspects of connection through art activities during the Corona era, and said that the role of art is to create more moments that connect the world around us. Director Seonghee Kim of the Korean Op/Scene Festival emphasized that the corona pandemic further strengthens nationalism, and racism, and that art needs to resist this separation and to unite transnationally. Valentin Byanck, director of Marres, House for Contemporary Culture said that the coronavirus has enough time to spend at home, and that we should try to return to the world of experience in the future.

In the discussion that followed, reflectively reflecting on the international art exchange activities so far and discussed how and what perspectives to approach to reconnect the disconnected ones.

2021 ARKO Online International Symposium

Theme	Re: Connection
Date / Time	March 23 - 24, 2021 / 15:00 - 18:00
Venue	Sangam Digital Magic Space (DMS) Studio 3
Format	YouTube Live Stream
Hosted by	Arts Council Korea
Sponsored by	Arts Council England, British Council Korea, Goethe-Institut Korea
Organized by	Danish Agency for Culture and Palaces, Embassy of Denmark in Korea,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Dutch Culture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mbassy of the Netherlands in Korea stageone

Day 1 March 23(TUE.), 2021

Arts in the time of the pandemic

Moderator : Jeelhye Suh President of InCulture Consulting, Affiliate Professor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Opening remarks	S. Korea	Jongkwon Park Chairperson, Arts Council Korea	
15:00 (UTC 06:00)	Welcoming remarks	Germany	Marla Sukenberg Director, Goethe-Institut Korea	
Subject				
	Keynote speech	S. Korea	Beyond projects and platforms	Bosson Shim Sociologist, Poet,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s
15:10 (UTC 06:10)	Presentation 1	Denmark	Festival goes on even in the age of pandemic Copenhagen Architecture Festival(CAFx)'s experience of holding the festival virtually in 2020. Architecture's perspective of the pandemic	Josephine Michau Festival Director, Copenhagen Architecture Festival(CAFx)
15:30 (UTC 06:30)	Presentation 2	Germany	COVID-19 vaccine prescribed by artists Arts to lighten COVID-19 vaccination, the sculpture exhibition at the COVID-19 vaccination center in Bottrop, Germany	Gereon Krebber Sculptor, Professor at Kunstakademie Disseldorf
	Presentation 3	UK	Overview of Let's Create: Arts Council England's strategy for community arts	John McMahon Senior Manager for Policy & Research, Arts Council England
16:45 (UTC 07:45)	Discussion	S. Korea	Jinhee Lee Arts Council Korea member, President of Women with Disability Empathy	
		Netherlands	Maaike Verberk Managing Director, Dutch National Knowledge Institute for Culture & Digitalization	

Day 2 March 24(WED.), 2021

Relationships, connections, and exchange in the time of the pandemic

Moderator : Hyewon Chi Theatre critic, Visiting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s				
	Welcoming remarks	UK	Darren Henley Chief Executive, Arts Council England	
15:00 (UTC 06:00)		Denmark	Einar Jensen Ambassador of Denmark to the Republic of Korea	
		Singapore	Paul Tan Deputy Chief Executive, National Arts Council of Singapore	
		Netherlands	Cees de Graaff Director, DutchCulture	
Subject				
	Keynote speech	Singapore	Awaking to the new international, the new local, and the new colonizations beyond the pandemic	Ong Keng Sen Theatre Director, Artistic Director of T!Works
15:10 (UTC 06:10)	Presentation 1	UK	New pattern of relationship-forming : The arts and mental health	Esme Ward Director of Manchester Museum, Chair of the Culture, Health & Wellbeing Alliance
15:30 (UTC 06:30)	Presentation 2	S. Korea	Arts ecosystem and international exchange	Seonghee Kim Director, Oh!Scene Festival
	Presentation 3	Netherlands	Prospects for and response to arts and international exchange	Valentin Byvanck Director, Mairres, House for Contemporary Culture
16:45 (UTC 07:45)	Discussion	S. Korea	Jisun Park Creative Producer, Producer Group DOT	
		Singapore	Kuo Jian Hong Artistic Director, Theatre Practice	



Jongkwon Park
Chairperson, Arts Council Korea

Good morning, good afternoon, and good evening. I am Jong-Kwan Park, Chairperson of Arts Council Korea.

It is a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e 2021 ARKO International Online Symposium. In order to promote Korean arts in the international arena, Arts Council Korea carried out multi-year collaboration programs first with Arts Council England in 2016, and then with Germany and Denmark. Such a multi-year, bilateral collaboration has continued with Singapore since 2019 and with the Netherlands, with whom we are celebrating 60 years of diplomatic ties for the period between 2020 and 2022. Arts Council Korea has held the ARKO International Symposium every two years to reaffirm the partnership with its overseas partner institutions and facilitate international exchange in the spirit of reciprocity and cooperation. Due to the pandemic, the third ARKO symposium is being held online.

My special thanks go to Chief Executive Darren Henley of Arts Council England, Dr. Marla Stukenberg of Goethe-Institut Korea, H.E. Einar Jensen, Ambassador of Denmark to Korea, Mr. Paul Tan, the deputy chief executive of the National Arts Council of Singapore, and Mr. Cees de Graaff, the director of DutchCulture,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ending their wonderful greetings for this symposium. I also want to thank the speakers from home and abroad who have joined this symposium despite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is virtual setting.

The unprecedented pandemic has turned our lives upside down. Social distancing, travel restrictions, lockdowns, and all other measures proposed to overcome this once-in-a-lifetime crisis all speak to disconnection.

During the seemingly endless pandemic, the art scene, especially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needed to find a different approach. The 2021 ARKO International Online Symposium will look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pandemic to arts, society, and individuals. It will also explore what needs to be done and considered in order to reconnect disconnected relationships.

On Day 1, under the theme of arts in the time of the pandemic, will take a look at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pandemic and how art is addressing them, focusing on artistic activities regarding topics such as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mental health, and the pandemic, followed by discussions to share diverse views.

Day 2, under the theme of relationships, connections, and exchange in the time of the pandemic, will consider the impacts of the pandemic on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of arts and culture as the pandemic has increased uncertainty and caused disconnection in international exchange, as well as a reversal in internationalization.

Reflections on the existing approach to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will lead to the discussion on the potential ways of and perspectives on reconnection.

I hope this symposium presents a space for us to explore possibilities for reconnection and continued exchange amid the shifting environment and crisis.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thank the Arts Council England, the British Council in Korea, the Goethe-Institut Korea, the Danish Agency of Culture and Palaces, the Embassy of Denmark in Korea, the National Arts Council of Singapore, Dutch Culture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Embassy of the Netherlands in Korea for their unsparing support for this symposium.

I wish all of you the best of health and happiness. Thank you.



Marla Stukenberg
Director, Goethe-Institut Korea

On behalf of the Goethe-Institut Korea, it is my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e ARKO Online International Symposium.

Cultur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are dealing with the question of how the COVID 19 crisis will further affect the existential questions of artists, artistic creation and the art and culture business in general. Many doubt whether there will be a return to "normality" before Corona. There is talk of a "new normal", but it is still unclear what will be considered and accepted as normal in the near future. There is also talk of new possibilities or the "new possible", because the Corona crisis has opened floodgates for new artistic formats, innovative forms of artistic and cultural exchange and new possibilities of virtual presence and virtual exchange with the consumers of artistic productions.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apparent that these are not temporary solutions born of necessity, but experiences with a lasting effect. The key words of the various sessions of this symposium outline the paradigm shift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I am very pleased that the Arts Council Korea is giving international experts the space to discuss these important aspects with this symposium.

The Goethe-Institut is also currently dealing in depth with the spectrum of questions mentioned: mid of April, 14th to 16th, the Goethe-Institut in Seoul is planning the online conference "Making Lemonade. Towards a digital future for the arts". At the conference, best practice examples from all sectors will be shown and space given to the question of what a desirable digital future for the arts might look like. The conference will include panel discussions, online performances and showcases. We will be happy to take the results of the ARKO Symposium with us and build on them.

However, there is another dimension to the challenges artists are facing during this crisis, that I think has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so far: This year's State of Artistic Freedom Report, released in February 2021 by the international NGO Freemuse, documents an analysis of 978 acts of violations of artistic freedom in 2020 in 89 countries and online spaces. 17 artists were killed, 82 were imprisoned and 133 detained. Oppressing artists' voices has not stopped with the restrictions on cultural events imposed worldwide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contrary, to some extent, it intensified. COVID-19 measures are being misused as pretexts, to silence dissident voices of artists and artworks.

Even though this aspect goes beyond the scope of this symposium, I would like to take the opportunity to draw attention to it in my greeting. In addition to all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we face during COVID19 and post-Corona, this danger should not be overlooked, since some governments are 'weaponising' Covid-19 to silence dissident artist voices. This should not become an integral part of the "new normal".

I wish the further course of this symposium many inspiring moments and insights into the impact of the pandemic on artistic creation as well as on art and cultural exchange.



Darren Henley
Chief Executive of Arts Council England

I am extremely honored and pleased to participate in the 2021 ARKO Online International Symposium hosted by Arts Council Korea.

It has already been a year since we have been physically isolated each other due to COVID-19, but the world has gotten smaller as we learn to cooperate in virtual spaces across organizations and borders. As a result of the global pandemic, digital cooperation between nations has reached its maturity.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day we can experience things physically again, of course, but it is certainly a good thing that we can now experience creativity online and communicate with ease in virtual space.

This symposium brings together artists and thinkers from countries such as Singapore, Denmark, The Netherlands, Germany, and Korea. It is a great pleasure for Arts Council England to review common themes and share new practices with you.

In 2016, Arts Council Korea and Arts Council England jointly invested in a series of projects to support collaboration, joint creation, and exchange of performances between artists from both countries. For example, in one visual arts project, the two establishments planned and operated the exchanges and residency between 12 Korean and 11 British craft artists, mural painters, and video game creators from large cities such as Busan and Sheffield. In another project, a British performing arts group called Crying Out Loud performed a new hip-hop dance at the SIDance Festival in Seoul while National Changgeuk Company of Korea performed "The Women of Troy" at the South Bank Center in London. I am proud of the success that the Arts Council Korea and Arts Council England have achieved together two committees have been working on together. The tradition of partnership between writers and producers from both countries continues today. In this symposium, we will discuss the effects of art and culture on equality, innovation, digitalization, climate change and mental health in times of a pandemic.

Our committee focused on providing emergency funds to cultural and arts institutions, museums, and art galleries that were unable to function properly during the pandemic last year. Last spring, it was decided to spend all of the committee's resources on the Emergency Response Fund, and in the summer of 2020, the government commissioned our committee to operate the Cultural Recovery Fund, which supports numerous business models within the creative industry. Recovering from the pandemic could take a long time, but we are focusing on what we can do in the meantime to re-establish and revitalize projects at home and in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partners, artists and curators, audiences, and communities.

Our committee announced a new 10-year strategy last year. However, by taking into account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since COVID-19, as well as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and the UK's withdrawal from the EU, our committee has once again put our priorities and resolutions in our one-year implementation plan for 2021-2022 to be announced this spring. There are five themes in this plan.

We will focus on supporting the culture and arts industry, as well as individual artists. We will also focus on diversity, changing the quality of life in local communities through local investment in culture. It is to take steps to redefine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which are important for artistic goals and economic independence. John McMahon of our committee has already made a presentation about the subject of art and health. This topic is an area that we have been focusing on for the past one or two years, as well as being an area where art can play a role of inspiration and healing throughout society.

We hope you all have a fun and fruitful time.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England soon.



Paul Tan
Deputy Chief Executive,
National Arts Council of Singapore

My greetings to Chairman Park Jong-gwan, guests, and everyone who loves culture and arts. I am extremely pleased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day of the ARKO Online International Symposium from Singapore. On behalf of National Arts Council of Singapore, I sincerely congratulate Arts Council Korea for successfully hosting the first day of the symposium.

I am so grateful that we are still able to use the digital platform to bring together the international art world and continue the important work of cultural exchange even when face-to-face meetings are not possible. Although the pandemic has changed the world, we must actively use the digital tool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culture and art industry, and to creatively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The pandemic has hit the economy and many industries including culture, art, and entertainment. Artistic activities are being resumed little by little, but we are yet to recover from the shock that the pandemic has given us.

However, the pandemic has also served as an opportunity to reaffirm the artists' resilience and creativity. Many artists have adapted to new environment and have created works that light up our hearts. The arts have touched us during the times of pandemic, and through yesterday's speakers, we were able to see that the artists responded to the pandemic with affirmation and determination.

The role of National Arts Council of Singapore is to support Singaporean artists to inspire the people of Singapore through their works, connect communities, and solidify the global presence of Singaporean art. Even in this period of limited mobility, international exchanges and partnerships must be strengthened so that artists can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art conversations. Technology is a great bridge.

We cannot meet in person right now, but through remote, we are able to learn a lot from each other about the lessons and experiences the pandemic has given us last year. I am really looking forward to today's presentations.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Thank you.



Einar H. Jensen
Ambassador of Denmark
to the Republic of Korea

Hello, everyone. My name is Einar Jensen, and I am the Danish Ambassador to Korea. I sincerely welcome you to the 2021 ARKO Online International Symposium.

From 2018 to 2019,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Denmark, countless cultural exchanges and activities took place between the two countries. Arts Council Korea and Danish Agency for Culture and Palaces signed an MOU, and a total of 25 cultural projects were promoted through the International Arts Joint Fund.

It is a great honor for Denmark to participate in this symposium. On behalf of Denmark, Josephine Michau, the director of Copenhagen Architecture Festival, will share her thoughts on the perspective of the arts during the pandemic and how the arts community should respond.

I know there are a lot of interesting presentations prepared for today. I wish everyone a good time. Above all, I hope that the dynamic cultural exchanges will continue even in these difficult times.

Once again, congratulations to Arts Council Korea for hosting such an important and significant event.

I wish all of you good luck.



Cees de Graaff
Director, DutchCulture

I am Cees de Graaff, director of DutchCulture, centr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I'm really sorry that I cannot be with you all today live. But we are very grateful in the Netherlands about the kind invitation from our partner Arts Council Korea, to take part in this meaningful and timing international symposium.

We are glad that Maaike Verberk, managing director of DEN, the Dutch knowledge institute on culture & digitalisation, shared with you yesterday about the Dutch experience of 'Fieldlab events', looking for solutions for culture and creative sectors out of the pandemic. Today, Valentin Bywandk, director of Marres, House for Contemporary Culture in Maastricht, the Netherlands, will give an excellent presentation speaking from an art institutional perspective.

I wish you all another inspiring day with fruitful exchange and discussions. And, we look forward to further close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Netherlands in the near future with the ARKO.

Thank you.



Beyond projects and platforms

Boseon Shim

Sociologist, Poet,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s & Arts



Greetings! I am Boseon Shim. I am a poet as well as a sociologist.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he 2021 ARKO International Online Symposium. I am very honored to join this symposium as a keynote speaker. After I was told that the theme of this symposium is 'RE: Connection,' I thought hard about it. The 'Re' in 'RE: Connection' may mean the restoration of something that has been lost. I understood the theme of this symposium to assume that we have **lost** something that was connected or can be connected and that it will be restored. Then, I asked myself, 'since when we have **lost** connections?' Going back to 'RE,' when will we **Re**gain what has been lost again? The pandemic may have accelerated the loss of connections between people, and communities, which was already in progress?

These questions popped up. Although it is important to restore what's been **lost**, we need to think about and pursue new connections during and after the pandemic. The impacts of the pandemic on our lives at the national as well as global levels are beyond reckoning. We can reflect on the current situation with multiple keywords or under several themes. Among them, the first keyword that occurs to me is survival. That is because so many lives are being destroyed, **lost**, and put in a deep hole. As we are going through the pandemic, we struggle to become survivors. When we hear about historical events such as catastrophes and massacres, we conjure up exceptional, extraordinary events that happen somewhere else in a different time zone. However, the pandemic threatens the entirety of humanity with the possibility of disease and death, undermining and freezing social activities. We were confused and terrified when confronting the pandemic at first. But over time, such an exceptional situation has become the norm. Somehow, we've become accustomed to the situation. The media produces a daily report of the numbers of infections and deaths. But those figures come across only as statistics managed by experts and the government, not us.

There have always been occasions where physical proximity to others is considered a risk. During the pandemic, citizens are often categorized based on infection status. They are divided into the general public, high-risk group, and patient group. Within the general public, there is another category called asymptomatic carriers. They are literally invisible threats. We are made aware of the invisible threat, that is, the asymptomatic carrier, even among those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who are considered the healthiest and safest of all. As I witnessed the categorization of individuals, citizens, and people based on the potential harm, I was reminded of the Hobbesian condition of war of everyone against everyone else. I view the current situation as a variation of a time of war, where every man is an enemy to every other man. To put it differently, we are living under the threat of everyone against everyone. The most critical factor for survival in facing such a threat is everyone's caution against everyone else.

We all know that the impact of a disaster is unequal. The impacts of a disaster are even more severe on the so-called minorities of society, including the poor,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the displaced. A disaster deals another blow to already poor quality of life and vulnerable social safety net. However, we've also been told, as Rebecca Sohni testified, that in a time of crisis where a formal system fails, a community for voluntary cooperation, mutual-aid, and solidarity is born. At the time of the Sewol ferry disaster, we saw citizens voluntarily come together en masse to help search for the missing and find facts.

However, COVID-19 is even more serious as it makes it harder for such a community to rise amid a disaster. As mentioned before, everyone, anyone can be a potential threat to everyone else regardless of their good intentions to render assistance and support. So, we can only trust those who keep their face masks on. An exemplary citizen is the one who keeps distance and avoids contact. Under these circumstances where uncertainty and anxiety go rampant, we rely on the government's disaster control system and experts' leadership. That is why we pay close attention to the disaster statistics, alerts, and quarantine guidelines issued by the government on a daily basis and the insights of the experts who watch government policies closely to see whether they are reasonable and well implemented.

08:44 In the meantime, our daily lives have become even more dependent on the online space, the Internet, and platforms. The platform environment determines what to do and how, as well as what to spend money on and how. We hold meetings, work, buy things, converse, and

relax according to the algorithm of platforms. A platform's recommendation system decides our preferences for us. Our lives are turned into a program that minimizes errors and optimizes preferences.

Even prior to the outbreak of the pandemic, the voluntary community had weakened, and the dependence on the state system and platform had increased. That was no different for artistic production and access. Art has aggressively responded to historic turbulence. And the response was not merely by a single artist. The avant-garde movement brought together individuals scattered here and there and fought against the turbulence through friendship and discussion.

The problems is that contemporary artists seem to be putting information sharing, self-advertising, and interaction with the audience via social media above collegiality. The Me Too movement in the Korean and the global art scene showed that the collegiality of artists was, in fact, a hierarchical, violent order of power working in accordance with male hegemony. At some point, the collegiality of artists, became nothing more than a strategic partnership for arts organizations and public funding.

While collegiality and camaraderie suffered, the pandemic seems to have shaken the loose the connections or interactions among artists. In the face of the pandemic, art has not responded to the crisis as well as it could have. The pandemic has caused a crisis in the art, which, in turn, intimidates art already in crisis.

We've entered an era when art is considered as a project implemented with budget and a plan. An artist is an expert, intermediary, worker, and entrepreneur within a project. The autonomy of art is a policy norm of art's length principle, nothing more, nothing less. Amid the crisis in the arts brought about by the pandemic, we desperately call for public support and interventions. We ask the government for help. We ask for a more efficient, greater number of online platforms to present art. We have to admit. Barring public suppor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for artistic creation, and livelihood as well as collaboration, especially of most artists whose artistic practice is experimental, radical, and not commercially viable.

At the same time, artists have not always been dependent and subordinated. They have introduced common agenda and experimental imagination into the project for which they received support as well as the platforms on which they are working. Artists have pursued a strategy to realize the free, equitable, and creative imaginations in life even under the pressure of profits and performance. This was possible for a simple reason. Artists hope for and experiment with new possibilities as they meet and talk with people and practice in a concrete place. That is not because they are of good character but because of what they have learned, embodied, and sought after, that is, the power of communication and sharing inherent in the arts. But we are failing to exert and live out that simple, but fundamental power.

We should discover and invent that power from the inside of projects and platforms. Unless we do so, projects will be no more than tasks carried out according to logistics and platforms, no more than an environment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Then, the one and only goal granted to artists will be survival. Now is the time for us to consider a creative project and democratic platform to discuss and learn in the middle of uncertainty. We should apply what we have experienced and experimented with through trial and error during the pandemic to the post-pandemic world. We should speak to shattered hopes as well as successes with the utmost candor. That is how we can seek ways to be reconnected and stand in solidarity.

How can we move from international exchange that we discuss today to international solidarity? How can we formulate common agenda out of various cases and experiences to be shared today? How can we link the common agenda formulated with a wide range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agenda and issues of the region? Equally as urgent as the implementation of an efficient and innovative project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andemic is to discuss and share the challenges, difficulties, and possibilities, and prospects arising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rtistic tasks. We have to collect and catalog them, put them together, and think deeply about them. We have to consider the worsening problems and increasingly distant solutions amid the pandemic and then the feeble and desperate possibilities scattered throughout. I would like to close by quoting a phrase I like. This is from Victor Heredia's song, Razón de Vivir.

To discover and consider
That all I need is you to be here
With your bright eyes

I don't want to define artists as geniuses who create something new under the sun. I want to define artists as those who gaze longer, think longer, and stay longer with bright eyes. To me, artists are those who apply the attitude of 'longer' to the place of thinking, to the place of conversation, to the place of making and creating something, and to their work and workplace. I believe such an attitude holds during the pandemic, too. So, half-jokingly, I can say that the last one who clicks 'exit' to leave the zoom meeting room when everyone else is rushing to get out of this meeting room is full of artistic talent.

Festival goes on even in the age of pandemic

Copenhagen Architecture Festival(CAFx)'s experience of holding the festival virtually in 2020/Architecture's perspective of the pandemic



Josephine Michau Festival Director, Copenhagen Architecture Festival(CAFx)

The Copenhagen Architecture Festival is a public festival and is a venue for the architecture and urban issues to be researched, discussed, and widely spread. The festival consists of public programs such as online and offline film screenings, exhibitions, guided tours, performances, seminars, workshops, and publications which are held in three major Danish cities such as Copenhagen, Aarhus and Odense. The aim of the festival is to question the realm of architecture, promote critical thinking, inspire, engage, and raise awareness of how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shape our lives and the world. Founded in 2014, CAFx is Scandinavia's largest annual architectural festival.

Let me tell you how COVID-19 has affected CAFx, and how we have been adapting to the pandemic. On March 11, 2020, the Danish government announced a national lockdown. Initially, it was scheduled for two weeks only, and it was a month before the opening of CAFx and a week before the launch of a large-scale publicity with a huge budget. Nobody knew what would happen after two weeks. Will the world return to normal or will the festival be canceled or postponed indefinitely? We had to make a choice. I predicted the latter. We had to contact 150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ners, cancel all schedules, and get approval from the sponsoring organizations. I had an unbelievably busy two weeks. The office was shut down and the plan that had been made over the year was discarded.

I had to think again and adjust to the situation from scratch. Above all, we had to find a way to survive financially. There were over 200 events, large and small. How can we make these events happen? How can we avoid the events being buried in a national lockdown? How do we create meaningful content that can grab people's attention in the times of a pandemic?



We started the public application for the festival in April. We wanted the applicants to submit their thoughts on how the pandemic had affected our homes and cities and how it will affect us further. We received countless essays and imag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published them on our website and social media. At the end of May, in joint effort with EAHN, WHO and Think Fast, invited experts to several meetings to discuss how we can create a 'City with Pandemic Resistance'. At the same time, we thought about how to turn the events into an online activity. The exhibition 'The Impact of the Postwar Economic Paradigm on the Development of European Cities and Architecture' was converted to an online exhibition. We produced YouTube videos and streamed them in May and June for six weeks. Another exhibition about Copenhagen's sustainable transformation, was produced in publications and podcasts, and was released on various platforms in April. Also, seminars on film and architecture were published on websites, linking architecture schools around the world. From April to June 2020, various contents were produced and released online. It turned the festival into a digital media hub.

At the same time, I was contemplating when and where to hold the offline festival. Eventually in October, offline festival was held in Copenhagen, Aarhus and Odense, hosting over a hundred events in 11 days. Many of the originally planned events were canceled and could not be resumed. However, most of the remaining events were sold out because visitors who have been thirsty for physical events actively visited



them. And in November, a national blockade was issued again. In the first year of COVID-19, we witnessed the goodwill and cooperation of our collaborators on our decision. I also experienced full support and active cooperation to cope with this situation. Although the planning of cultural events froze due to COVID-19, last year has been a year to rethink the way culture is produced and consumed.

Ever since the globalization, festival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arts and culture. Festivals have been used as a competitive advantage to attract tourists and talented citizens. However, the pandemic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observe, reflect, and reevaluate the structures that have dominated our lives. Last year we were unable to attend any international events. Instead, we had the opportunity to realize that creativity can survive and bloom anew. I learned to wear masks, refrain from physical contact, adhere to food hygiene, and use hand sanitizers, but at the same time, I also learned to use my existing local knowledge and connect with the outside world through IT technology. Virtual platforms have proven to be effective in meetings with audiences online. Like many cultural institutions, we actively applied both online and offline events rather than totally replacing offline events with virtual events and digital contents.

In the future, online and offline content will be developed with a much closer interaction. Physical encounters are still necessary since it is the best way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ideas. However, with digital content, you can reach a wider audience without time or space constraints. Not everyone has to attend every event in person. Based on what we have learned through the pandemic, we will reduce carbon emissions in future festivals, conferences, and seminars. The actions initiated in response to the pandemic will continue in the future. Even more so if we think about the climate and democracy.



COVID-19 vaccine prescribed by artists

Arts to lighten COVID-19 Vaccination, the sculpture exhibition at the COVID-19 vaccination center in Bottrop, Germany



Gereon Krebber Sculptor, Professor at Kunst Academy, Dusseldorf

I am Gereon Krebber, a sculptor living in Cologne. I would like to introduce my recent exhibition that was held at the Bottrop Coronavirus Vaccination Center.

Bottrop is my hometown, and home to the Joseph Albus commemoration museum. However, both art museums and art institutions are all closed. As a visual artist who relies on exhibitions and projects, my experience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s. The projects have been cancelled and the exhibitions were postponed. However, I am not limited to the same level as actors and DJs who cannot perform at all. I can continue my work in the studio. I am also able to continue my lectures at the Arts Academy. Therefore, my experience of the pandemic was not as difficult as those who depended completely on audiences. I am fortunate that I do not need any audience while I am working.

However, there was no place to display the work. Then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exhibit the work at the new vaccine center in Bottrop. It was proposed by the owner of the building where the vaccine center was located. Originally, the vaccine center was an indoor golf course which was rented to the city of Bottrop for the city to use it as a medical center. The putting greens had to be left empty to ensure surface hygiene, but the city was not sure how to use the empty space. Doing exhibitions in an art gallery or museums compared to a renovated vaccine center building is completely different. When installing my works at the Vaccine Center was nearly finished, the fire department said that it wa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all the works and dismantle the wax work installed in the center. So, we demolished such works and installed works of B1 class materials that are difficult to be uttered. Another hurdle was that people could only come and see the exhibition when they are in the building to get vaccinated.

Personally, it was easy to prepare the exhibition because the archives were located right next to the vaccine center. The owner of the building allowed me to store my works for years in the space right next door. My works are quite huge in size. Imagine putting them in a box and stacking them in layers. Lucky for me, all I had to do was grab the works and pass them to be installed.



The vaccination is done sitting in a chair. After the inoculation, you will be observed whether anaphylactic shock reaction does not occur in 20 minutes. You will be seated the whole time for the duration, appreciating my work. In art museums, the viewing time per work, including video work, is only 2 minutes. You may have a chance to experience self-awareness while looking at my art works.

Most of my work is site-specific or place related. However, I decided not to go with my usual theme since I thought it was too scholarly and not autonomous. Usually, we are only able to experience art in certain places such as an art gallery or a museum. However, due to the pandemic, people are able to experience art in an unusual space.

Of course, there is no visible medical effect on art. But it could give us a moment to look away from the gloomy reality we face. We may be able to go into a vaccine center and get an injection and relax our body in a situation where we do not know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Although it is a very minor dimension, experiencing images that contain metaphors rather than descriptions may influence this experience in various dimensions. For some, it is about turning the traumatic pandemic experience into an extremely abstract and concrete moment. I guess that is what caught my attention. The media has never been so interested in my exhibition. With everything shut down, a vaccine center was created, and I took this as an opportunity. This may be the way to respond to unusual situations. We are now living in a time that is certainly not the best, but I find joy in finding new contexts and finding new ways of coping in situations that are unexpected.

Overview of "Let's Create" : Arts Council England' strategy for community arts



John McMahon Senior Manager for Policy & Research, Arts Council England

I'm aiming to cover the following things – an introduction to Arts Council England – who we are, and what we do; what we've been doing to financially support the cultural sector during COVID; how the cultural sector has been supporting communities throughout the pandemic; and also, a look to the future.

Arts Council England is England's national development agency for creativity and culture. We are what is called an 'arms-length body' of the United Kingdo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This means that we work on behalf of government, but have a degree of delegated freedom to make funding and policy decisions that support the needs of the sectors that we're responsible for - artists and arts organisations across all art forms; museums; and public libraries; as well as the broader role of culture and creativity in British society - including in fields like education, local government and healthcare. In January 2020, we published Let's Create - our new 10-year strategy, which sets out our strategic vision and the key outcomes we aim to deliver over the next 10 years, serving as a blueprint for creativity and culture in communities across England. By 2030, we want England to be a country in which the creativity of each of us is valued and given the chance to flourish; And where everyone of us has access to a remarkable range of high-quality cultural experiences.

In a normal year, at the Arts Council, we distribute about £620m to support the arts in England - this comes from a mix of money from Government, which we call grant-in-aid; and also, funds raised from the United Kingdom's National Lottery. We also distribute funding for some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including circa £76m a year from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to support creative education programmes and to maintain a national network of Music Education Hubs. Of this annual expenditure, the larger portion goes towards what we call our 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s - an England-wide network of arts organisations that receive regular funding from us. There are currently 829 of these of all sizes, being funded between 2018 and 2023.

We also usually award about £90m a year to around 3,500 projects through an open programme that we call Arts Council National Lottery Project Grants; And we distribute a range of wider funding, including to individual artists; and through a range of targeted programmes.

Our sector development responsibilities run far beyond the organisations and projects we support through funding - We're the main responsible body for England's over 2500 museums; Over 3000 public libraries; About 32,000 formally constituted voluntary arts organisations; over 280,000 businesses in the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as many as 2m workers and the place of culture and creativity across society, including in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in healthcare too.

COVID 19 Response



So, I mentioned that's what we do in a normal year - this obviously *hasn't* quite been one of those. As has been the case in many countries, the COVID 19 pandemic has had a pronounced impact on UK public spaces where people gather in groups, or connect with each other. Needless to say, this has included significant disruption of how arts venues, museums and libraries have been able to deliver their work. There's been a core of support available from the UK Government across all sectors of the economy, and the arts and cultural sectors have been able to benefit from these;

In March 2020, they launched the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this supports employers whose employees are unable to work due to the restrictions of the pandemic, and covers up to

80% of an employee's salary for the hours they can't work, up to a maximum of £2,500 per month, per person. The scheme is currently scheduled to operate until September 2021 - 18 months in total. At its peak it supported 9.5m workers across 1.2m employers. The Government has also maintained a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for self-employed workers. So far this has supported 1.9m individuals. The total final cost of these schemes is projected to be around £100bn.

Due to the business models of many arts organisations and practitioners, further sector-specific support has also been required. We extended the funding cycle for our 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s by 12 months, to give them extra stability during the crisis. Less than two weeks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first UK lockdown, Arts Council England developed a £160 million Emergency Response Package, for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needing support. Soon after this, we were confirmed as one of several bodies administering the UK Government's Culture Recovery Fund, an unprecedented support package of £1.57 billion for the culture and heritage sector. We've distributed £656m of this fund so far.

We also reopened two of our long-standing open programmes, Arts Council National Lottery Project Grants, and Developing Your Creative Practice, with a focus on helping applicants to weather the storm of the pandemic. We also distributed a £3.36m Emergency Grass Roots Music Fund, and £4m for individual artists through 7 benevolent funds distributed with partner organisations like the Society of Authors, Help Musicians UK and others. In total, to date, through all of our programmes for pandemic support, we've distributed about £913m for over 15,2 thousand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This is about 4-5 times our normal operational workload, in terms of both £££ and awards made, so it's been quite an intense year for us, as it has also been for many others.

Culture during the pandemic

One of the many remarkable things about how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ave responded to the stress and stasis of the Covid-19 lockdown has been the way in which culture the arts have been so widely embraced. The role played by creativity has been profound. Stimulating and entertaining people while also breaching loneliness and isolation, Helping people to manage clinical mental health conditions, as well as promoting positive mental health for the wider community. Supporting physical wellbeing, through activities like dance for mobility and singing for lung health. Providing hope – a means of processing uncertainty and trauma and an outlet for grief for families kept apart. We've seen many inspiring moments of spontaneous creativity since the start of the crisis. One of the first such instances, and perhaps the most iconic, was the very moving sight of Italian families singing from their balconies across deserted streets.

Here in the UK, an impromptu programme of 'Garden Gigs' emerged in Sheffield with neighbours performing to each other at appropriate distance. We've also seen colossal engagement with TV-led mass creative projects like Grayson Perry's Art Club on Channel 4 – with 1.3m viewers a week, and over 25,000 artworks submitted so far by members of the public, for an exhibition that will take place at Manchester Art Gallery after the pandemic. And Gareth Malone's Great British Home Chorus, an internet choir created by a BBC singing teacher and programme-maker, which saw over 100,000 viewers sign up in the first week alone. Arts Council England also launched a new partnership with the BBC, Culture in Quarantine, to bring extra content to people at home. We've seen book clubs, singing groups, and drawing classes get creative to stay connected – from using video conferencing platforms online, to embracing analogue communication by sharing tapes, letters and books by post. The use of windows and doors as an impromptu gallery space has been so widely adopted that London's Victoria & Albert museum has been trying to document the moment for posterity. Of course, we've also seen a phenomenal range of activities delivered by arts and cultural organisations. Many organisations have been delivering singing classes to support the respiratory rehabilitation of those vulnerable to, or recovering from, COVID, including English National Opera through their acclaimed Breathe programme. Many other organisations have been delivering a full programme of online and telephone-based activities to support especially isolated or vulnerable local residents, even including food parcels – including Heart n Soul, a London organisation working with those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the Old Courts in Wigan, in the North West of England.

Other organisations have focused on providing printed materials and activities delivered by post, including the South Bank Centre, for people living with dementia; hospital arts teams, through a national Boredom Busters newspaper; and Arts Council England ourselves, with over 25,000 Let's Create packs delivered to schoolchildren at home. Other organisations have focused on delivering activities and entertainment to those in isolated settings – including Live Music Now, Equal Arts and Magic Me organising music performances for those in care homes; Arts & Homelessness International and the Museum of Homelessness providing books and creative activities for homeless people brought into temporary accommodation during the crisis; and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Arts Alliance and many partners supporting creative access for prison residents.

As already mentioned, a year ago, we published Let's Create, our 10-year strategy for the arts in England. Last week, we published some updates, which further detail how we will enable the arts and cultural sector to thrive, and support England's communities, as we exit the pandemic. The development of Let's Create has been underpinned by extensive, detailed consultation, incorporating the input of over 5,000 people - and not only

those from our own sectors, like artists, librarians, curators, musicians, etc. but from across England, inclu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those who work in adjacent field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care, and the wider general public, in communities all over the country.

Amongst the key findings of this consultation were:

Ge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nces continue to exist, in terms of levels of access to, and engagement with, the arts and culture, including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That, though awareness of the issue is increasing, there remains a persistent and widespread lack of diversity across the creative industries

A need to help foster greater resilience in the business models of publicly funded cultural organisations

A need to enable the sector to innovate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Needless to say, all of these challenges have been made even more important by the pandemic.

From April 2021 onwards, one of the key ways that we will seek to meet these challenges will be by requiring every organisation that we fund to engage with at least one of 3 key outcomes -

Creative People: to ensure that everyone can develop and express creativity throughout their life

Cultural Communities: to support villages, towns and cities to thrive, through a collaborative approach to culture

A Creative & Cultural Country: to keep England's cultural sector innovative, collaborative and international.

Let's Create is also underpinned by 4 Investment Principles, which set out how cultural organisations will need to develop in order to better deliver the 3 Outcomes.

Ambition & Quality - driving cultural organisations to be ambitious, and committed to continuously improving the quality of their work; Inclusivity and Relevance - ensuring that England's diversity is fully reflected in the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that we support, and in the culture they produce

Dynamism - supporting cultural organisations to be dynamic, and able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the next decad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 requiring cultural organisations to lead the way in their approach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e're only at the very start of our journey with Let's Create. We know that the challenges brought by the pandemic increase the need to deliver the changes we envisage - As do other ongoing factors which globally we face together - including inequality, the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ongoing change wrought by continuous advances in technology. I'm really glad to be representing Arts Council England in joining all of you here today, to discuss how - as a global creative community - we can collectively navigate and overcome the challenges presented to us not only by Covid 19, but also those which lie beyond.



Discussion

Moderator

Panelists

Presenters

Jeehye Suh President of InCulture Consulting, Affiliate Professor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Junhee Lee Arts Council Korea member, President of Woman with Disability Empathy

Maaike Verberk Managing Director, Dutch National Knowledge Institute for Culture & Digitalization

Josephine Michau Festival Director, Copenhagen Architecture Festival(CAFx)

Gereon Krebber Sculptor, Professor at Kunst Academy Disseld

John McMahon Senior Manager for Policy & Research, Arts Council England

Maaike Verberk I am the Director of the Dutch National Knowledge Institute for Cultural Digitalization. DEN is a cultural industry support organization funded by the Dutch government, supporting the digitalization of cultural institutions and cultural workers. Let me tell you about Field Lab, a new practical research method to secure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cultural policies for the future.

Field Lab, as a consortium of stakeholders, is a systematic method developed by the creative industry to conduct practical experiments in the existing environment. It is the process of verifying possible solutions with the target group in an interactive loop over and over until the optimal solution is reached.

In mid-November 2020, the Dutch Arts Council had three challenges. The first challenge, digitization, which is a field DEN actively participates as a knowledge organization. The Arts Council intends to develop a concept for a new platform through Field Lab. We want to develop a platform for digital cultural contents and online audience communication. Like the Netherlands and other countries, many cultural institutions are developing their own platforms. Therefore, a lot of resources are inevitably put into use. Moreover, we do not share anything related to building the platform with others. The audience is also divided within various platforms. That is why we are contemplating the concept of interconnecting all these platforms. In addition, the goal of the Arts Council is to build a platform that pursues a common agenda, not to pursue profits. It also aims to develop a new digital or hybrid art form because digital platforms require new art forms.

The next challenge is space design. I am trying to do an innovative space experiment for the future. It is to innovate space experiments with social distancing and new art spaces in mind.

If we can properly introduce this field lab and conduct research with cultural institutions while finding practical solutions, future collaboration will be possible between various institution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ultural field. In addition, an agile way of working for cultural practitioners with the audience at the core could be introduced.

Field Lab, however, has not been fully introduced yet since there are some challenges left.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a new method for practical research conducted outside of a support organization approv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A legal basis is required, and it takes quite a long time to secure the legal basis. We are currently waiting. In addition, how to support the agility and resilience of the cultural industry by transforming the results of Field Lab

into policies in the future remains a task.

Director Josephine Michau said that she already experimented with the hybrid method at the festival. I wonder what role you are playing socially as a cultural institution and how the government can support this hybrid form.

Josephine Michau I have started this change in response to COVID-19, but I do not think this is temporary. In fact, in the beginning, I was busy adjusting to new situations. With a much more strategic approach, we have now made our website more capable of accommodating more contents that are more interesting for our website visitors. Bringing digital formats offline and bringing offline formats to digital platforms allow us to shar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This is the approach we are currently taking.

John McMahon It seems that digital will have a huge impact on our society. I would like to hear from Josephine on the role of architects and how art and culture will change these new urban spaces and public areas.

Josephine Michau When the coronavirus first hit, we thought about whether we really need a city or we should run away from the city. In cities, there is constant contact with people. I went to the cinema, went to the bakery, and when these things become impossible because of the lockdown, I thought that the city itself would lose its meaning. However, there are still a lot of people coming into the city, and the demand for the city seems to continue to be high.

John McMahon Also, what role can an artist or art institution do to bring the empty space back to life? How can you strengthen the connectivity between citizens?

Josephine Michau In fact, cultural institutions have a strong tendency to get out of priority when people get back together. I think arts and cultural institutions play a role in bringing us together. They strengthen our identity and allow us to experience things as a group.

Jeehye Suh It seems that Field Lab has devised a way for art to concretely realize what needs to be imagined in society's needs and changes. I understand that you have suggested a way to make

DAY 1, Arts in the time of the pandemic

something that does not exist yet by continuing to try it little by little, get feedback, and try again. How does Mr. John McMahon think of the methodology proposed by Field Lab from the institution's point of view?

John McMahon I wonder if it is important for u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ith culture and creation at the core of social innovation. Field Lab is bringing us together, bringing various stakeholders together, engaging ev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cultural and artistic institutions, and allowing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I think this approach is interesting and has enormous potential.

Jeehye Suh From an artist's point of view, how does Professor Kreber view the medium of Field Lab?

Gereon Krebber There is already a Field Lab in the art world. It is a project-based way of working. Artists work on temporary projects using physical spaces like museums and galleries. This could be replaced online, but I wonder if the moment when you meet art in person is applicable to important art. Hybrids are not always good. We may not be able to give either of them.

Jeehye Suh I heard that it would be nice to flexibly see both online and hybrid characteristics rather than focusing too much on hybridity. How about moving on to the next designated discussion.

Junhee Lee While preparing for this discussion, I read a book called

"Question the Mask Could Not Answer." In this book, Joo-kyung, an activist and researcher for the human rights movement for people living with HIV, talks about the need for a limit. It does not mean returning to a previous state, but a time when the body becomes tolerant of the disease by knowing how to measure the pain, and at the same time, a time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similar pain at any time. I wondered how our society should be in this process together to endure these things. For this to be possible, we should take a closer look at the structure of isolation that COVID-19 produces.

Let us talk more specifically about our concerns. First, the declaration that UNTACT is the New Normal is becoming common sense in Korean society. I am curious about the opinions of the art world in each country. Online platform accessibility, access to technology is difficult, or resources are distributed unequally. So, if we do not put unequal distribution as the main agenda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to UNTACT, I wonder what it means other than replacing technology.

Secondly, I was curious about how the discussions for the rights beyond the protection policy for artists are taking place in the COVID-19 situation. The vulnerable artists have become more vulnerable.

Thirdly, I would like to emphasize a little about the importance of receiving compensation for artistic work as a right without going through the agency's certification in the creative process. I am curious about the social debate on how to support the rights of unsalaried labor.

The fourth is about responsibility. There are people who have situations and conditions in which they must meet in person. In such a cases,

I wonder how the state should create the rights and conditions for gathering, and how the state will take responsibility.



Jeehye Suh It seems that you asked a question of discussion that made you look forward to an urgent response, to see if you are not missing an already old fundamental problem and look in a different direction again.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the problem of inequality in accessibility and un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will arise while people communicate through remote. It would great if you could share your thoughts on this matter.

John McMahon Like in England and around the world, I think life of a writer is unstable. This situation existed even before the pandemic. The pandemic has made this problem even worse.

In the case of the UK, because writers cannot continue their work as writers, they are working in a supermarket or working as a delivery man. We must somehow ensure that the authors do not lose their motivation to write. Income must be ensured, and various actions must be taken so that the creative works continue. We are aware that social barriers and economic instability exist within the art world. And these writers have been hit hardest by the pandemic. In addition,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various disabilities also suffered the most severe health shock due to the pandemic.

In Britain, ethnic minorities are at great risk. They are also exposed to health risks. Not only that, but also economically. We must keep an eye on the current challenges of inequality and think about how art can derive solutions.

Jeehye Suh I will hand over the microphone to Professor Krehber. In addition to dealing with the issue of inequality and what you are experiencing as an artist in Germany, you talked about the problem of artists being trapped in the platform created by the artist's support system and the system that must be proved to be an artist. What are the problems that German artists face within this structure?

Gereon Krehber Yes, there is a similar application program in Germany. That is why artists apply, prove it, and get a fund. But there are no such rigorous selection committees or things like you mentioned. Just apply and you can get funding right away. In my case, since I am now also working as an instructor, I did not apply because I was not eligible, but I know that there have been about one or three support funds so far, and most of the artists, especially artists I know, have all applied and received.

And there is inequality within the artist as well. Artists, in a way, are at the extremes. The pandemic hit the artists who were in the vulnerable

group much harder. They receive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ith little qualification hassle. You also seem to have talked about the rights of artists. In fact, I do not think I should have any privileges. I think it is more important to be guaranteed proper rights as citizens rather than the rights of artists.

Jeehye Suh Can you tell us what kind of voice the artists are saying about these artists' rights, or on inequality?

Maaike Verberk There is a code of ethics in the Netherlands that states that if you receive government subsidies, you must pay a fair wage. There is also a code of ethics for inclusion and diversity. It contains the content that the audience should be able to represent a variety of ethnicities and races. It also stipulates that it must be able to encompass people with disabilities or various social classes, and through this method, we are actively working to resolve the issue of inequality. It could be a bureaucratic approach, but I think it works.

Josephine Michau In the case of Denmark, artists have been hit hard. There was no support system for artists for nearly a year after the outbreak of coronavirus. Many artists have gone bankrupt.

Jeehye Suh It is a difficult problem to solve. Through the discussion, he said that it is necessary for artists to gather their voices, and laws and institutions are also needed, but before that, the turning point could be prepared in the same way as the program. The last question, I wonder if there are any countries that are preparing an effort or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sets the conditions and takes responsibility for allowing people to gather so that they can perform performances and exhibits.

John McMahon It is unclear how to resume the arts and culture industry. However, there are talks about the use of a vaccine passport in the UK. We are talking about whether this will make it easier to open up public places, but it can also fuel the problem of inequality.

Josephine Michau Denmark also recently introduced a vaccine passport, so I wonder if it will be a test bench now.

John McMahon The UK also introduced it. It passed this morning. How are people reacting to the vaccine passport?

Josephine Michau Actually, there are a lot of people against it. The argument is that it is not equal. There are other people who cannot get vaccinated when it comes to vaccination passports.

Jeehye Suh Vaccine passports can be a good alternative, but it will have problems. This is the circumstance and condition we are facing now. Alternatives seem to always have complex problems and considerations.

Some of the audience asked a question. With the transition to a non-contact society, the boundaries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non-disabled have become more blurred than before. Although physical

Gereon Krehber I think you have been asking about an artist's social role. Obviously, if you say you have received such support from the state, you must show some responsibility not only because you are a state-supported artist, but as a citizen. Artists should lead conversations about their background, race, or various gender issues, and present new perspectives on existing discussions.

Jeehye Suh If you have any concerns about whether artists should become involved in public service in exchange for the support,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then with us.

Maaike Verberk Artists' online performances, such as online tours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are helpful in overcoming the pandemic. This is not only helpful to the artists, but also to society, and I think that the attempts at creating and experimenting with contents in new ways through these various experiments in art institutions are also very meaningful.

John McMahon The artist's responsibility is to do the work. It is about connecting people, coming up with new ideas, and building new understandings so that we can understand our world anew. Other than that, we do not assign any specific task to artists. Our main role is to support artists in continuing their artistic activities.

Jeehye Suh A question has been asked about what kind of social role the supported artists should play, what kind of discussions take place, and whether individual artists should be held accountable.



Re:Connection

DAY 2

March 24.WED. 15:00-18:00

Relationships, connections, and exchange in the time of the pandemic

Keynote Speech

Singapore

Awaking to the new international, the new local, and the new colonizations beyond the pandemic

Ong Keng Sen

Theatre Director, Artistic Director of T!Works



Hello, I am Dr. Ong Keng Sen. I am happy to be present as a keynote speaker today. I sincerely thank the Arts Council Korea for hosting this event today. It will be interesting to talk about the changes in the world that will appear after the pandemic.

There are several key issues affecting art. In particular, we have to think about how to approach "globalization". Strict mobility restrictions are in place and inequality between countries is also serious. Rich countries get vaccinations, poor countries cannot. This situation will continue in the future. It is not possible to communicate across borders without the digital platform we use today. Things will get better when the vaccine is introduced. However, it is still unclear whether the world will be able to return to life as it used to be. Also, it remains to be seen that safety is secured in terms of health problems after vaccination. Personally, it will be difficult until 2021. Movement is quite limited until 2021, and I think it will change a little from the spring of 2022.

I still meet and talk with many foreign artists. I have been in self-isolation three times in the past five months. This is because I want to physically communicate with places that want collaboration across borders, places that actively foster collaboration. Why is collaboration important? In my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want to see their problems in a new light. They want the gaze of global audiences who see the local situation with unfamiliar eyes. This is because we want to see the local situation in a new way.

Until we collided with the pandemic iceberg, this was in place. The extent of the pandemic's shock wave is still expanding. We must admit that in the future, anything that is 'global' outside the digital platforms may be completely lost. But digital is completely two-dimensional. At the same time, maybe the world is preparing to move on to a stage where liv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s different from before. Perhaps we are struggling as the first generation, being pulled out of our comfort-zone, and forced to new ways of communication. The future may be an era where humans and post-humans who help us communicate coexist. We are struggling through this transition. Maybe I am looking at the world optimistically. Humans move to the post-human stage where machines and humans are combined, understand the world, and move on to the future.

However, the problem is serious. As I travel all over the world and give lectures on digital platforms, I have come across two groups of artists who feel the difficulties caused by the new normal. Even if the new normal returns to its previous state, the long-standing power structure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Global North and the Global South will remain. Power, finance, economy and resources are entirely controlled by Global North, and Global South has limited influence, immobile, and in some ways exploited by Global North. In the past 30-40 years, breakthrough progress has been made in international exchanges, through women's movements and various civic movements. We have witnessed the world transcending the dimension of survival and communicating across borders.

I heard this from a female filmmaker and a female writer. How should we work now? The real big problem is that because of the pandemic, we cannot get together. People's physical assembly is no longer allowed because of concerns of infection. As a result, it is now almost impossible to communicate, conduct research, make documentaries, and exchange across the borders. Everything is institutionalized and large institutions dominate the dialogue. For women, this is a sensitive issue. Women achieved freedom after a long struggle.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 gender, race and class have made some progress in expanding freedom and social inclusion. However, all that progress fell in front of a new hegemony. It collapsed before money, vaccines, and how digital platforms work. Language is also a big problem. If you do not speak the language properly, you will not be able to communicate on these digital platforms. Because in the end it boils down to information and the ability to speak immediately and directly.

We have entered a space where we can record more information, and this information is easy to manipulate. Now is the era of information processing. The recordings are edited and manipulated into so-called fake news. The problem with digitalization is that the real world in which we live is subordinated to a world where there is no longer any contact with reality. There are several types of colonization. Colonization is currently ongoing. When we say colonization, it means that there is a colonizing force, and a hierarchy of relations takes place. When someone controls the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is being edited, the individual is unable to reach the true source of the information. So, what happens?

We are seriously colonized economically. All progress we have made in relation to class and equality has been slowly erased. In fact, it was severely disconnected. We have reached a situation where we are no longer able to communicate and communicate across borders as before. This is because everything is processed, subordinated, and manipulated through the subsequent editing process. No more on-site attendance or face-to-face communication. This means that we are no longer in contact with three-dimensional reality and live in a highly compressed two-dimensional world. In this way,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lonization takes place. The new normal also applies to the outsourcing method of art production.

When a director like myself sends a proposal or a draft from Singapore to another country, you can say that I am outsourcing an art production. Let us say I send it to Bangladesh. I cannot go to Bangladesh for collaboration. I have sent the plan to Bangladesh, so I expect it to be implemented locally. The proposal is implemented locally. I am in Singapore and I control everything that is going on in Bangladesh with a zoom platform. I think this is another form of colonization and the collapse of collaboration.

Over the past twenty years,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about Asia-Asia collaboration and Asia-Europe collaboration. Now, however, collaboration takes place in a processed form. It became a way for the chief director to dictate what the locals should do somewhere else. It will be a kind of outsourcing. I think that the recent emergence of art production like this has a lot of problems. At first glance, it may seem equal and collaborative. If you send the draft locally, the draft will be revised locally according to the local situation. However, local expressions based on the local context are controlled by a senior director elsewhere. I see this as the loss of collaboration that we have achieved through long struggles. From the late 1990s to the 2000s, a huge movement unfolded in the contemporary art world. How to add depth to collaboration and collaborate according to the local context. There are also areas where business trips are essential in culture and arts. Traveling for collaboration is also an essential move. Business travel is also essential for face-to-face collaboration and networking. That is why we need to understand how the new normal affects us.

Around the world, festivals began as people gathered for dinner, mourning, and discussion. In Asia, festivals are inseparable from rituals. Humans act to express themselves, their community, and our place in the visible and invisible worlds. These human actions communicate in a variety of ways. In essence, human behavior is a small act of an individual mediator. Contributing to the desired or necessary change in this world. In the past festivals, these rituals were often based on the subject of the temporal acceptance of death holding onto the body, death in nature, new life, recovery, and continuation of life. Today's festivals usually revolve around ticket sales, number of registrations, fireworks, opening gala events, and professional management models. It is also recognized as a networking opportunity for stakeholders. We have reached this stage at the end of late capitalism. The pandemic may be the point of reconfirmation of life, transformation, and sustainability by returning to the roots of art and festivals, re-recognizing it as a meeting of people, rethinking, reimagining, and reconnecting the power of people as personal mediators. In other words, we must abandon the old structure of the pre-pandemic festival. This is because these structures are also aimed at performance indicators such as ticket sales and fireworks, rather than interaction between people. You must think about a checklist for drawing a new local and a new international future.

Let us look at the checklist together to create a strategy for dealing with the new local and new international. First, you need to think about what being 'global' adds to the festival. Why should our festival be global? Is it just a symbolic name that can be easily discarded and concentrated locally at any time? If 'global' cannot be abandoned, we need to find a way to protect it. It would be the case that you have to be 'global' to get a fresh look at the local context. If so, we must think about how to keep collaboration in this new 'global' model.

The second question. The outbreak of the pandemic has reduced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field participation. Numerous foreign writers, speakers, managers, and philosophers are participating digitally. There are at most three events inviting overseas to the festival. For those three cases, hundred people must self-isolate. Even if there are thirty people who are subject to self-isolation, this is a huge number. Considering the quarantine period, a three-week free period should also be provided. I am in Taipei right now. You must self-isolate for three weeks before you can start working. The key, then, is how to prioritize the international elements essential to the festival. Do you have a mission statement or statement on which to set priorities? In what ways can we, as cultural workers, suggest adjustments in order to compare and study the planning

of one region with another local context? What can we do to realize trans-local, where various local contexts come together to add depth, not local for local?

Festivals, biennials, and even film festivals are branded as global events. The branding of 'global' events has become popular all over the world, and now the protocol is the same in every country. However, in a pandemic situation, we can now shift our focus to a local context that looks at various locals rather than international brands. It is the realization of a trans local that infuses energy between locals.

The fourth question is whether future global festivals and biennials can fit into the local context. Like a spiral structure, the global and the local are woven together, providing information and enriching each other. How can this combination be deeply planted in the DNA of future festivals and biennials? How do you become the first step, not a superficial strategy? Will digitization be the way we go? We should think about all these questions.

Like global and local, online and on-site events need to be able to become more prosperous. When it comes to collaboration, it would be possible to perform a large portion of the work, about thirty percent, on a digital platform and then conduct on-site events.

Thinking about 'global' and 'local', we naturally return to the problem of decolonization. How do we decolonize the current power structure that leads to a more exclusive world? How do we decolonize a world of resources that favor rich countries over poor countries? In the past, for example, talking about the political dynamics between cultures, we focused on how to balance relationships. Should the subject of quarantine always be a writer from a poor country? Should the guest writer always self-isolate? That means that the host country, the party paying for the invitation has power, and the people receiving the invitation should be subject to quarantine. It takes time and effort and, as you know, self-isolation limits your freedom in many ways. Should the same people always be subject to quarantine? For example, if you work with Pakistani or Indonesian writers, it is those from these countries that are always subject to quarantine. You will be quarantined in the process of entering the country for collaboration. The idea of decolonization should be an ongoing process. How do we mak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ous collaborators more equal? At that level, going beyond the power structure that manipulates information is crucial in moving towards digitization of the future.

It is also a huge problem that encompasses all our work. Failure to do so may result in the loss of the collaboration we have fought so hard for so long. As with the civil action and civil rights movement to abolish discrimination against gender, race, minority, and disability, all of this may be lost in the process of going through the pandemic. That is the reason why we must about how we can fight for a more generous and more decentralized justice.

New pattern of relationship-forming: The arts and mental health



Esme Ward

Director of Manchester Museum, Chair of the Culture, Health & Wellbeing Alliance



I would like to see what role culture and arts can play in health and equality, especially in mental health.

I am the Chairman of the Culture, Health and Wellbeing Alliance (CHWA), and I am the Director of the Manchester Museum at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The Manchester Museum is one of the UK's largest university museums and houses an encyclopaedia-like collection from natural sciences to archaeology to human culture, including geology. Our museum's mission is to build a sustainable world and cross-cultural understanding. We are also practicing this by striving to develop a culture of care for each other and for the world.

The feelings of weakness and helplessness that many people felt are still prevalent today. However, we have not yet figured out the full impact of COVID-19. However, the adverse effects on mental health cannot be denied. In late March and April, when the blockade began, we witnessed countless times of generous support, empathy, and solidarity with each other. I believe this has shown what is possible. Writer Rebecca Solnit asks you to recognize this period as a treasure, light, and energy source that will lead to a better society.

Chloe Sykes, a resident art therapist at the Manchester Museum, switched jobs online when the lockdown was implemented, allowing both staff and volunteers to receive online art therapy. I believe that focusing on employees' well-being, especially mental health, is an important part of having a big impact on employees. How can we work together to support the mental health of others if we do not take care of our own mental health?

At the top floor of Manchester Museum, there is a university for youths with autism called Project Ink. As a museum charity program and a product of collaboration, it currently uses half of the museum's top floor. Although the museum is closed to the public due to a blockade, it is open daily to Project Ink students.

Supporting the community by working with partners and charitie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major mental problems and further solving future mental crises. We need to ask ourselves what we need and what we should be in our communities. We understood this as a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and usual role of the museum. Project Ink, headquartered in our museum, is working with other organizations to expand its activities across the city of Manchester.

Like many other institutions, activities routinely performed in museums have been turned online. So is Muso Baby. The program, which used to be conducted with music therapists and numerous medical institutions, is now running online. The Manchester Museum also produced numerous website contents such as "Manchester Museum to Enjoy at Home." A section has been devoted to resources for caregivers. A new program called "Own and Head" was also developed.

I learned a lot while working online. At the same time, digital inclusion is a big problem. Thousands of young people, families and citizens do not

DAY 2. Relationships, connections, and exchange in the time of the pandemic

have or have limited access to the digital world. Shortly after the blockade began last year, public health and arts organizations across our city have been thinking about the digitally underprivileged and what we should do for them. The agency and three hundred volunteers have joined forces to create thirty-five creative care kits. 16,000 packs were distributed to seniors, and 22,000 packs were distributed to teenagers aged 13-20.

The Manchester Museum is running a transformational innovation program called Hello Future. Recognizing the past year and responding with imagination, inclusion and a warm heart is the core of our museum's transformation. We must now all free ourselves from the habits and traditions of competing with other organizations. Instead, embrace the language of possibility and empathy. This is a task that continues into the post-COVID-19 era.

It is only when you begin to cope with the many complex problem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deterioration of your mental health before you can make real change. We need to redefine the framework of care through art.

The Manchester Museum is linking efforts to encourage communion with nature as part of its determination to support mental health. In the summer of 2020, a new work called "Wild Chorus" was produced. This song combines the sound of nature recorded outdoors and the voice analysis of the weather pattern data while reflecting on the moment when the world became quiet. In a trapped situation, we focused on listening. And when we finally open the museum's door again, we will welcome visitors who will return to us again with the experience of containment and hope of recovery.

Creating more moments that reconnect us and the world around us is an important role for art to play. But for everything to be okay, it takes more than just amazement and joy. If our institutions become relationship-centered rather than transaction-oriented, if we build new partnerships and collaborations across places and fields, if we value artists and audiences, learn from them, support them, and keep pace with them, we all may be able to deliver the narrative of hope, belonging, and bond that we desperately need.





Arts ecosystem and international exchange

Seonghee Kim Director, Ob/Scene Festival

The pandemic presented us with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life holistically. So, we are witnessing the emergence of artists who are taking another look at nature and ecosystems and attempting to reset the relationships with them in a whole new way. They are working on how arts should be created, practiced, communicated, and even performed and experienced based on their reflections on the art scene and arts ecosystem. By expanding such thoughts to the natural ecosystem, they attempt to suggest a new future for arts.

This discussion is led by Swedish choreographer, Marten Spangberg. He claims that the role of art is to erase the subject as a resistance to the production of the subject, arguably the most salient characteristic of capitalism. He also says that today's art must imagine the unimaginable. He says that dance is not the expression of the artist's subject but more like a boat or wind that takes the audience to a landscape or nature. His recent work, *They Were Thinking*, In The Background, *Wild Nature* illustrates such thoughts. There are two dancers in Seoul, one in Berlin in the middle, and one in London on the left. Those four dancers perform in the three cities at the same time to complete choreography. At exactly the same hour when the sun sets in Seoul and the sun rises in Europe, the four-dancer piece starts.

When the dancers are synchronized, the dance breaks free from the control of the viewpoint. The audience can experience the dances in three different places with their visual and tactile senses simultaneously. As the work is intended to guide the audience to see and feel the landscap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message from a choreographer or spectacular gestures of the dancers, the landscape is critical.

Spangberg says that dance is not something to be possessed. It is public goods to be experienced by anyone. It is flat. It is time and space to be shared with anyone. The dance piece was presented in public spaces, not in traditional theatres, and changed the way we experience such performances.

It showed a new vision of art allowing the audience to experience nature and landscape, not the expression of the artist's subject. As for the ecosystem, th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capitalism are something we need to take a look at. There are artists who resist th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capitalism by continuously, insistently, and recklessly producing useless overhang. They produce not profits but beauty and poetry. In *Time Has Fallen Asleep* in the Afternoon Sunshine by Mette Edvardsen, a Norwegian choreographer performers are very important in the work. Performers would memorize every single word, including the postpositions of a book they like. They become a living book and part of a library's collection. When an audience visits the library and chooses the book, the performer, i.e., the book, would take the audience into someplace within the library or out for a walk and recite his or her content. It's so useless. Learning a whole book by heart does not make any money. This is a good example of producing useless superfluity stubbornly and recklessly.

Both Marten Spangberg's and Mette Edvardsen's works were created and presented during the pandemic when the invited performance was not available. Such circumstances offered us an opportunity to look deeper into the significance of and approach to international production. Such reflections on the international exchange have led to a different, interesting way of international exchange. The thoughts on the art ecosystem naturally lead me to the fields of technology and virtual space. We spend most of our time buried in smartphones, online games, social networks, and Netflix, constantly moving between virtuality and reality. We spend as much time in the online space as we do in the offline one. There are so many things to see and enjoy. Anyone can be an artist.

In such an era, content creation doesn't seem to be the sole province of artists anymore. Then, why should we go to the theatre and view a piece on stage? Is it possible to put the theatre play in another time and space? These questions are being raised.

Jisun Kim's *The House of Sorrow* reveale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theatre into the virtual space. In the work, Kim built a virtual theatre and presented performance there within the online game *Minecraft*.

Another example would be *Engel: Dark Tour*. This event was held within the online game *Battlegrounds*. What you see on the screen is the poser of the game. As you can see, it is a violent, last-man-standing survival game, *Engel: Dark Tour*, the event within the game allows 100 audiences to go into the violent game, unbound by the rules of the game, do the dark tour of the ruins, and carry out a task of solidarity to

DAY 2. Relationships, connections, and exchange in the time of the pandemic

experiment with the possibilities of a community. During the pandemic, virtual spaces like streaming or YouTube have been treated as tools for the most part.

But the event considered the arts ecosystem of a theatre and approached the virtual space as an extension of theatre space.

Now, turning to international exchange, I would first like to cite the viewpoint of otherness inherent in international exchange. The concept of the subject and others is an invention of the 20th century in the West. The subject is related to the thoughts of Marten Spangberg, too. The approach of the subject and others is binary and hierarchical. It places the West at the center and defines the rest as others. What you see on the screen is a photo of a human zoo. It is a dehumanizing practice of displaying non-westerners in an exhibition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ies based on racial discrimination and colonialism.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 colonialist views toward others. Such views are still prevalent in the 20th and 21st centuries. This is the photo of Brett Bailey's Exhibit B, in which the artist asks a critical question over whether such a viewpoint has really disappeared. In the past, international exchange greatly involved introducing exotic, folk, or ethnic culture and adopted this as the mainstream of cultural exchange. That approach is still found in some areas.

The modernistic way of thinking, which sets the subject apart from others, is no longer valid, and many artists argue that the subject shall be discarded.

The art scene has made a scathing reflection on the colonialist perspective hidden in international exchange. Based on the reflection, international exchange is moving toward an equitable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each other and respect for differences. This is the internationalism we believe in and are entrusted with. These days, nationalism, ethnocentrism, and racism are rearing their ugly heads, shored up by the pandemic.

Arts should fight against segregation and isolation and insist on internationalism more strongly than at any other time.

I recently attende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Re)Construction of the World*. The conferment aims at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politics, and solidarity in rebuilding the broken world order. Interestingly, the conference seems to propose renewal of politics by putting into practice transnational solidarity such as a transnational feminist movement, climate justice, an anti-racist movement, and a democracy movement.

Intrigued by this, I became interested in transnational solidarity. Surely, we are artists, not activists. We need to do what arts should do and find out what arts can do. What is the role of arts for social transformation? I think it is to make us imagine the possibilities of solidarity. And international exchange has a critical role to play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conclude my presentation by expressing hope for international exchange, which will guide us toward such transnational solidarity.





Perspects for response to arts and international exchange

Valeitjin Bywanck Director Mares, House for Contemporary Culture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and experience. Last year we all spent so much time at home and now everyone is craving for outside experience. But do we really know what this experience is? Do cultural institutions know how to handle this experience? In fact, home and experience have been perceived as contradictory. The house has been a symbol of refuge, everyday life, rest and comfort. On the other hand, travel is called discovery and adventure. Last year, this perception began to change. The reason is that we have come to realize that our home is our eternal digital hideout.

Last year Mares hosted a series of online programs. Participants were delighted just by the fact that something was open. But at the end, everyone said that they want to go back to the real world. They longed for real experience. Can a public institution give this experience?

Let me introduce Mares, a modern cultural institution. Mares believes that the world is full of various artistic practices. At Mares, we try to present as many artistic practices as possible. Mares is set in a beautiful building in the heart of historic Maastricht. It presents new artistic practices and attracts artists from all fields, from visual arts, music, performance, dance, and cuisine. However, Mares' most distinctive feature is that it runs a program that focuses on the senses and body language.

Recent studies have shown us that our body is a huge reservoir of diverse knowledge. Art has claimed ownership of sensational world perception, but this is not exclusive to art institutions. To better recognize the world and to do our job well, we all need to train our senses. The task of public institutions like Mares is to deal with these sensory systems. It is to open the eyes of the audience to the idea that artistic practice, and furthermore, that life is full of sensory experiences.

Mares designed two programs for this. One is a public program that focuses on training the body, and the other is an exhibition program that focuses on hands-on experience. Mares invites writers to create environmental installations. Think of the sensation that fills the entire building and completely envelops the audience with changing landscapes and perspectives. The exhibition hall, walls, floors, and ceilings are all connected with unknown walkways and works like vines. Usually, these exhibits have few guides or signs to tell the audience what to do or think. The number of spectators entering at the same time is also small. Sometimes there are only one or two. Conditions are given to the audience in advance by asking them to take off their shoes, leave their mobile phones, and move slowly because it is dark.

Mares' exhibition stimulates the body to do all kinds of things. It stimulates the eyes to open to reality through sensory perception. It is about going to an art gallery and experiencing something difficult to expect. Because of this, the visitors can become embarrassed. Through the changes in temperature, perception, problems, and time, you experience everything that you cannot experience in an art museum.

After waking up, you become aware of your body, and can focus on what to do with it. What can you do with the knowledge? In this program, you train your senses. "Sensory Training Series" is a monthly meeting where scholars, scientists, artists, creators, and citizens consider the nature of experience together.

We must consider the reality of our longing for experience and what art museums and public institutions can do in terms of practical experience. Not all institutions are like that, but if you stay at the level of moving from one work to the next, and from one exhibition room to the next, you cannot satisfy people's longing for something outside their home and just create something that resembles a house. It is worthwhile for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to stimulate the sensory potential of visitors and satisfy their senses. There are countless ways to do that. At that time, the viewer's body will wake up to recognize its full potential, and through immersion, cultural experiences will be enriched with sensuous experiences, and the body will be trained to appreciate art more abundantly.

Discussion

Moderator

Panelists

Presenters

Hyewon Chi Theatre critic, Visiting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s

Jisun Park Creative Producer, Producer Group Dot

Kuo Jian Hong Artistic Director, Theatre Practice

Esme Ward Director of Manchester Museum, Chair of the Culture, Health & Wellbeing Alliance

Seonghee Kim Director, Ob/Scene Festival

Valentijn Bywanck Director, Mares, House for Contemporary Culture

Jian Hong Kuo I am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Singaporean theater company called Theater Practice. The institution was founded before Singapore became an independent nation in 1965, and at first, it started as a school and as a training institute. Although it is a theater company, the institution participated in various for artistic activities.

No one knows when the pandemic would end. That is why we reviewed the way we performed. I began to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with our staff, the relationship with the artist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audience. I wondered how to empower each other in such an era where people are powerless.

The first thing we had to do is to ensure jobs and the second thing is to create access to the arts. Because many people were locked up in their homes, and schools were all closed, over 80 shows were provided to schools through streaming. We ran a bootcamp for playwrights and artists, and we celebrated many things over 52 hours of streaming. But there was nothing we could do to go back to the norm. Listening to the three presentations today, I was impressed with the leadership issue. I would like to share my thoughts on what a leader should do in the time of a pandemic.

Director Seonghee Kim spoke about global exchange. I think that through COVID-19, we have a common experience. I thought I had to think about whether I could use this shared experience. But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reminding me of the utopian vision. I think we need a new imagination and think about how we can move on to a world of equality. Also, thank you to Valentine. You seem to have given me a new perspective on museums and art galleries. Many people are struggling to create digital content. Why should we explore this



new digital domain anew? In addition, I was contemplating what a real experience is, what a live experience is, and how we can make good use of both worlds.

Hyewon Chi Thank you very much for the wonderful and interesting words. We will now listen to the second speaker and continue the discussion.

Jisun Park COVID-19 has shocked everyone around the world with the same face, unprecedented in history, and we all stand in the same position, and I wondered if we could start everything again together on this line. However, as time passed, I thought that according to the logic of capital, the relations of exploitation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became deeper. Due to the corona virus, the importance of escapes from the colonial gaze emerged, recognition of the hierarchy and voices of the change emerged, and the possibility of a virtual world to expand the reality of digital democracy in which everyone can become a subject emerges, and another aspect at the same time. In Esau, the production of hatred, the colonization by the power of information is revealed. I think that our future will change depending on what we choose and do. I came to think again today that sharp reflection, exploration, and determination are needed more than ever.

We have been communicating on digital platforms for the past year. There have been many non-face-to-face collaborations that have been shared earlier. Should we continue to exchange exchanges even when borders are closed and there is a threat to safety? We asked a lot of questions about why we should exchange, but I think these questions are in line with very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role of art.

Regarding international exchange, I would like to ask a question to director Seonghee Kim. In his keynote speech, he said that New Normal also applies to the outsourcing method of art production. Due to the blockade of the borders, this method has been carried out a lot, and in Korea, outsourcing of such art production took place last year. And as I watched this work from the side, I agree that it is another colonization and collapse of collaboration, as I said earlier. In the future, it seems likely that this kind of collaboration will take place for the practice of green mobility. Fundamentally, in contemporary art of the present era, this kind of outsourcing of art production in a state in which the artist does not directly engage with people physically in the region is a new

Discus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t we must accept after the Corona era. I would like to ask you to tell us how to accept it and what kind of attitude is needed to prevent colonization from taking place in this kind of cooperation.

Lastly, I would like to ask you some questions and stories about green mobility and deep mobility that I mentioned earlier in international exchange. We are talking about green mobility or deep mobility to reduce our carbon footprint,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for the livelihood of artists who need to maintain economic activity through tours. If you can tell us about what changes and attitudes should support institutions and public art institutions in the post-corona era have, along with green mobility or deep mobility perspectives, and what changes should be made to support systems and structures?

Hyewon Chi From now on, I will start a full-scale discussion with our presenters and debaters who gave the presentation. I think that the other functions that the art of the new generation and the new era can do can be gradually expanded. It must b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international exchange, which is important. From a new standard of how to achieve equal collaboration and how to expand exchanges. In these cases, worry and expectation intersect together. I hope Director Seonghee Kim will give you more opinions or answers.

Seonghee Kim I would like to tell you a subjective perspective on the way of international exchange. I would like to challenge the collaboration. In the meantime, a lot of these individual collaboration projects have been created by projects or projects led by many organizations, also l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urthermore, when an artist wants or does not want to participate in such a project, he works within the collaboration frame that is formed. I saw a lot of cases in the field when I had to start. Since it is not easy for the condition itself to escape from such a hierarchy, is it healthy, is it for the artist, or is it a healthy way to bring out good results, especially when it is given from outside? I have constant doubts about it.

I am not saying that the other directions are all wrong. Anyway, in the early days of my work in the field, there were a lot of funds on the international exchange side, so when I looked for funds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most of them were these funds. Furthermore, in the sense that the results produced through such a process did not have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I wonder if somebody should raise an objection to the collaboration within the frame of international exchange.

Hyewon Chi Director Seonghee Kim asked questions about cooperation or structural issues within the frame of international exchange, cooperation, and points to rethink in the structure of collaboration, as well as points to consider together. The same is true for this symposium.

Valentin Byvanck Let me tell you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and experiential worldview. All the movements in society are heading online, so we need to have an awareness of the body, the real world, and create new experiences through it.



And another answer is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and local. To exist online means to exist globally. But at the same time, what we should not forget is local. We must not forget the local talent.

Hyewon Chi Now, there are a lot of stories about local, global, online, and digital platforms. If we look at today's topic, there will be a section on how to relate art and how to make exchanges. It seems that there will be works that require rewriting of relationship within art.

Jisun Park As a planner who is active in the field, I think it is important to track how things started when things went wrong or became problems. It is said that cooperation is important for today's exchanges. I think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artists who have been in a relationship for a long time through cultural and artistic perspectives with each other has no choice but to go on a very good path no matter what the outcome.

One more question. I think a lot of international exchanges took place within the support structure. However, I would like to hear opinions on how public policies should go in order to further expand the mobility of artists in the post-corona era.

Seonghee Kim I think centralization is the biggest problem. All funds are provided directly to artists from the Arts Council Korea or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orks that originated with artists and those that take and invite them internationally are, in fact, the role of intermediaries. The problem is that the inviting system has already been decentralized, such as festivals, theaters, and it is a structure to find writers there.

For international exchange, there must be mediators who can mediate in the middle so that the artists can go to the most appropriate place. The reason there is no mediator is that everything is funded, everything is so centralized, and the center goes directly to the artists. In fact, I think that the main point lies in the fact that there are so many grants.

Hyewon Chi Director Seong-Hee Kim told us about the situation in Korea. Yes, many countries have different art policies and issues. However, in the Korean situation,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role of the non-profit is very insignificant. I hope Director Kuo Jian-Hong would give us additional opinion.

Jian Hong Kuo Actually, we have been thinking about this kind of collaboration for a long time. That is why I had to go on a business trip, network, make friends, and find reasons to share with each other. But

DAY 2. Relationships, connections, and exchange in the time of the pandemic

It was not easy to do this. Because I had to check too many situations. That is why I think I need to go down a little more now. In other words, it does not go from top to bottom, but from bottom to top.

Hyewon Chi Thank you for your opinion. Do you have any additional opinion on this?

Esme Ward I have a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What I want to say is that a wide range of transformations are taking place. Not only the value of sharing, but also the connectivity we are paying attention to. We are also focusing on sharing the vision. At the end of 2019, we were the first in Europe to return the collections of our art gallery to the Aboriginal community of Australia. We cooperated with various partners and indigenous societies, and eventually the collection was returned.

This seems to be the direction we will be heading over the next 10 years. In a way, this long-term relationship started with an institutional initiative in our case, but I think it will lead to an ecosystem, a culture and ecosystem of sympathy and connectivity.

Hyewon Chi I think it was an ideal and envious model. I think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take this kind of desirable direction in all the art worlds or in the new relationship we are creating, the structure that the institution led, but eventually form such an ecosystem of solidarity and relations.

Valentin Byvanck This is not an alternative problem. It means that when we want to do some global international exchange, we always need the power to be led by that organization. Only then will the infrastructure work. I am not going to do all the details in facilitating this exchange. I think that it should be done at the institutional level for any movement to begin.

Hyewon Chi Why do we need transnational solidarity or connection, and what do you think is important in this area? I would like to ask you to give your opinion on how this transnational relationship would be desirable to have a broader relationship with other audiences in a digital environment, with other audiences in different regions.

Valentin Byvanck One thing I am sure of is that you will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every aspect of this exchange. For the part of experience, about human relationships, about local and all these personal factors, were all aimed in the past. However, through the pandemic, I realized again how important these parts are and how important it is to reflect on the values I have just said.

Jisun Park It seems that the virtual world has opened up very wide in our lives due to the corona virus over the past year. At the same time, it seems that the artists did a lot of experiments. In fact, artists gained new perspective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and these things, and then these new perspectives were conveyed to the audience through art. Now, with the expansion of the online platform, audiences from all over the world can view a single artwork on one online platform.

The transnational, solidarity experiences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due to the pandemic is truly valuable. I think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think about whether the audience can share their experiences transnationally just as artists expand the relationship and find a way.

Hyewon Chi To expand this question a bit, when art experiences expand online or in a digital environment, what we often talk about is a lot of digital accessibility. Somehow, depending on the age or personal experiences, there may be restrictions on these areas, and inequality or difficulty in them; a different form from the previous physical art





experience, may arise. I would like to ask your opinion on how the audience's experience expands in a better direction and, as a result, can continue to connect with art.

Seonghee Kim I have nothing on the audience's experience right now, and I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May I give you a different answer?

Hyewon Chi Yes, please. No problem.

Seonghee Kim I suggested the story of transnational solidarity in my presentation, but it was too short. I am a bit disappointed that I have not been able to discuss the cases of transnational solidarity in detail, so I want to do it here. It is said that in the Hong Kong revolution a while ago, through the use of Nintendo games, political speeches and slogan of the Hong Kong movement were distributed to various people. I found it extremely interesting. Another one is called an unsensed library, a digital library that collects censored articles. Entering that library holds many censored articles, books, and articles that are oppressed around the world, and they play a role in ensuring that these can be delivered in the future.

Before COVID-19, I viewed reality is superior to virtual reality. After realizing that a ton of people already spending time online, I became interested in online a lot, and there are possibilities of creatively utilizing methods that are obviously not only used as a tool for streaming online, but also as a platform of transnational solidarity such as something that artists mentioned earlier.

Hyewon Chi You talked about the online platform. I think this will have an effect on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the audience. Director Ward, do you have any additional opinion on this?

Esme Ward When we think about the future, we think how we are in the middle of making all of this into one cohesive whole thing. I think hybrid modeling is really an important topic for all art institutions and artists that we must implement today.

Hyewon Chi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opinion. In the future, I think that these are issues that need to be rewritten, remade, and contemplated together. Probably the last question. I am going to ask a question to Director Jian Hong Kuo. The audience asked a question in advance about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to be pursued.

Jian Hong Kuo I do not think I can speak on behalf of Singapore in terms of national policy. The story we have been hearing from Singapore for a long time was that we had to work on a project that could fly our country's flag. Singapore is a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space. It is a country that is familiar with fusion. That is why the conditions are adaptable and well-accepted.

Over the past decades, art has been developing, but it can be said that it is quite confined to the Singapore market. However, I think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a little more, and international exchange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There seemed to be little progress last year, especially in the case of digital platforms. Since I was not able to get away from the past, I think I need to learn something new. I think we should focus on what our unique values are and what values we can present in the exchanges.

Achievements

- In solidarity with the five countries' partner organizations (Arts Council England, British Council Korea, Goethe-Institut Korea, Danish Agency for Culture and Palaces,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Dutch Culture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mbassy of the Netherlands in Korea), through 2021 ARKO Online International Symposium, major artists and cultural and artistic policy experts from each country are invited as speakers to draw future-oriented tasks in the Corona era.
- After the pandemic, 5 countries' art policy visions, operational directions and strategies will be shared, and future ripple effects are expected in the domestic culture and arts scene.
- On the first day of the symposium on March 23 (Tue), the theme of 'Arts in the time of the pandemic', in the era of crisis in the Corona Pandemic Era, the value of art and artists themselves and the connection with society, along with a method that can be practiced, deriving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examples from each country on what efforts can be made to promote arts at the level of culture and arts institutions.
- On the 2nd day of the March 24 (Wed) symposium, the theme of 'Relationships, connections, and exchange in the time of the pandemic' is how the pandemic is changing the direction of relations, exchange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in the field of art. Finding a new direction for what kind of reflection we are making and how we can reconnect.
- It was broadcast live around the world through YouTube (Korean and English accounts) and Zoom in a non-face-to-face manner between March 23 (Tue) and 24 (Wed), and about 600 LAN viewers participate in real time.
- More than 1,000 people are able to watch the symposium again through the official account of ARKO Korea Arts Council.

※ Viewing possible through the official YouTube account of ARKO, Arts Council Korea.

